JAN 2 0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21 1982년1월1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anuary 1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폴랜드사태 책임지라"

캐나다등 서방국 소련에 경고

경제적 제재도 비쳐

(브뤗셀) 캐나다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외상들은 11일 소련에 대해 폴랜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폴랜드 군정에 대해 계엄령 해제, 체포인사 석방, 정부·교회·노조간의 대화재개를 통한 국가정상화를 꾀하도록 촉구했다.

NATO외상들은 또한 앞으로 폴랜드에 대해 식량 이외의 모든 상업원조를중단키로 결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회의는 또 최근의 폴랜드 사태는 인권에 관한 헬싱키조약의 위반이며, 소련이 폴랜드에 무력개입할 경우 국제관계, 특히 미·소 핵무기 제한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랜드 사태에 관한 특별회의를 끝내고 16개조항의 선언문을 발표한 외상들은 나토국가들이 경제적 보복조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련은 폴랜드의 정치·사회발전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 경제적 보복조처에 관한 일정표나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소련의 「타스통신」은 나토의 이같은 성명을 주권국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트루도 수상이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폴랜드의 질서와 평화를 회복키 위해 계엄령이 필요한 조처였다고 한 발언은 많은 폴랜드인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트루도 수상은 한 TV인터뷰에서 "소련군이 할일을 폴랜드 군인들이 대신하는 것"이라면서 "폴랜드 군사정부가 솔리대리티의 과잉요구를 막는 것뿐 아니라 경제불황에서 허덕이는 공산당정부를 구출해야 된다"고 말했었다.

방한 외국여행자

체류 6일, $791 소비

(서울 12일=연합) 11일 발표된 관광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들은 평균 6일간 체류하며, 체류기간동안 약 791달러를 지출한다.

4,740명의 외국인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가 언어불통을 불편한 점으로 들었고, 18.3%는 세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17.4%는 택시운전사의 친절하지 못한 점을 각각 들었다.

외국인여행자들이 체류기간동안 쓰는 비용은 80년 평균 607달러보다 30%가 증가한 791달러로 외국인중 프랑스인이 1,143 달러를 지출, 가장 많은 여행비 지출을 했음이 밝혀졌다.

한국체류중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2/3가 한국음식을 먹었다고 말했다.

한국토산품과 관련하여 10명중 4명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인삼을 샀다. 이들이 좋아하는 그밖의 토산품은 도자기, 민간 공예품과 보석류등이다.

친구초청 해외여행 허가

61개국과 무비자협정 계획

(서울 12일=연합) 한국정부는 작년8월 효력을발생한 해외여행 자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초청이 있을 때 해외여행을 허가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또한 가능한한 빨리 61개국과 무비자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안으로 아시아 5개국및 페루, 알젠틴, 모로코, 세네갈과 시에라·레오네 11개국과 무비자협정을 맺을계획이라고 12일 정부관리가 밝혔다.

현재 한국은 27개국과무비자협정을 맺고 있다.

정부관리는 해외 한국거류민들에 대한 금년도 한국정부의 정책은 해외거류민들의 법적지위향상과 공고한 한인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심장병소녀에 미군들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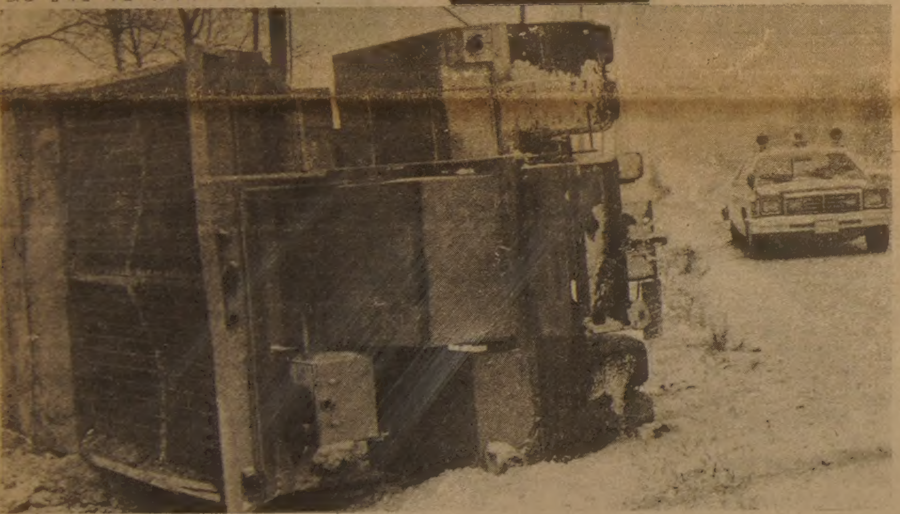
도미수술비, 여비부담

(동두천11일=연합)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메는 19세의 한국소녀가 동두천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들의 온정의 성금으로 내달 미국에 수술을 받으러간다.

미제2사단 제1여단 에서 잡역부로 일했던 이애숙양은 79년봄부터 심장장애로 병상에서 지내야했다.

집안이 가난하여 의사의 진단조차 받지못하던 애숙양은 작년봄 춘천소재 미군진료소의 브루스·이니스 박사의 진료를 받고서야 병명이 신경성 심장장애인것을 알았고, 서울의미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결과 수술을 받지않을경우 2~3년이상 살지 못하리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이양의 딱한사정을 전해들은 디모디·그로간 여단장과 많은 미군들은 치료비 모금운동을 벌여 작년말현재 1백만원(미화 1,439달러) 을 모금, 이를 이양의 미국행 여비 로 충당할 것이며 수술비는 「국제인간보조계획」(International Human Assistance Program)에서 부담키로 됐다고 여단 공보장교가 밝혔다.



◇누가 눈을 치워야하나? 폭설과 혹한 폭풍이 캐나다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제설차량이 뒤집어진 사고가 11일 옥빌 북쪽 트라팔가 로드상에서 일어났다. 기승을 떨던 혹한과 강풍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추위는 계속되고 있다. 폭설로 유명한 버팔로에는 2피트의 눈이 쌓였고, 두명의 동사자를 낳았으며, 수백대의 자동차를 눈속에 처박았다. 12일 최저날씨는 영하24도, 13일에는 영하 9도(다운타운 토론토)

원화환율 계속인상

$1=704원, 1일평균 70전씩

(서울 12일=연합) 금년들어 원화의 대미 환율은 계속 인상, 1달러대 704원까지 이르렀다.

한국은행의 12일자 고시환율 704원은 지난 연말보다 3원60전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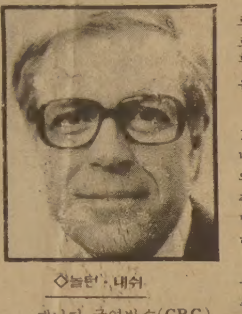
통계에 의하면 작년11월 이후 1일평균 60전씩 올랐으나 금년들어 70전씩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당국자는 환율인상의 요인은 작년 10월 이래 수출신용장 내도가 감소, 82년도 1/4분기의수출전망이 흐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업가들은 이같은 환율인상을 찬성하면서 이것은 수출경쟁력을 높여 수출신장을 가져오게 한다고 했으나 환율인상으로 인한외채상환액 증가에 우려를나타냈다.

CBC, 10시뉴스 신설

종합뉴스로 1시간 방영



◇놀턴·내쉬

캐나다 국영방송(CBC)은 인기프로중의 하나인밤 11시 내셔널뉴스를 없애고 한시간 당겨 10시에 내셔널 저널이라는 새로운 뉴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CBC사상 처음으로 가장 값비싼 도박이라는 이 프로변경은 11일밤 10시 놀턴·내쉬의 친근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새 프로를 보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하고 첫 말문을 열었다.

CBC의 내셔널·저널 은 11일 저녁 첫방송에서 캐나다 전국과 미국, 유럽등의 이상추위 현상을 현장취재 보도하고, 이어 80억달러 마약시장을 종합취재하는 그 1회분을 방송했다.

그러나 일부 방송전문가들은 이 수백만달러 신설 종합뉴스는 시간이 1시간 당겨졌어도 하품만 자아냈다고 혹평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1일의 첫방송은 44가정중 오직 9가구만 시청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청한9가구중 2가구는 보기는 보았으나, 재미는 없었다고 응답했다.

여자 뉴스캐스터 바바라·휘럼과 매리루·핀리가 보조아나운서로 등장한 CBC 저널은 일부 시청자로부터 "이 여자들 때문에 보지않겠다"는 항의도 받았다.

가정주부 클레어·톰슨여사는 "여자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좋지않다. CBC는 너무 여자아나운서가 많다"고 혹평했다.

◇바바라·휘럼

이 프로의 PD 토니·버맨은 "우리가 「쇼군」 같은 빅·히트를 노리는 것은 아니다. 인기도 위주보다 북미에서 질 높은 뉴스 프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CBC의 전국방송망을 가진 캐나다방송 CTV, 미국방송 ABC, NBC, CBS 등은 모두 11시대에 밤 뉴스를 보내고 있으며, 채널79 CITY-TV만 10시뉴스를 보내고 있다.

한국수출목표$253억

타이완등 3경쟁국에 뒤져

(서울 11일=연합) 한국은 수출에 있어서 아시아의 주요 무역경쟁국들에뒤지고 있으며, 그 격차는80년이래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53억달러 수출목표를 세웠으나 타이완의304억달러, 홍콩의 267억달러 싱가폴의 263억달러보다10~51억달러 적은 목표액이다.

한국은 작년도 수출액도 이들 3경쟁국들보다 11 억~33억달러 적었다.

한국은 77년에 수출액 100만달러선을 돌파한이래 80년까지 수출에 있어서이들 3무역경쟁국을 계속 앞질렀었다.

한국이 수출경쟁에서 마지막으로 뒤쳐진 주요원인으로서 이 보고서는 79년 10.26사건(박정희대통령암살사건)에 이은 사회및 정치의 불안, 높은 인플레이션율및 높은 은행이자율로 나타나는 긴축재정정책 등을 들었다.

◀알 림▶

매주 월요판에 실리던 『주간한국』은 오는 20일부터 수요판에 게재합니다. 금주「주간한국」은 악천후로인한 운송지연 관계로아직 계재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南國酒家
SOUTH CHINATOWN RESTAURANT
* 전통적인 칸토니스 중국음식
* 해산물(게, 천엽등)
* 팔진두부
* 각종국수
* 뱅쿠엘으로 써비스
OPEN HOUR
월~목(11 : 30~11 : 00 P.M)
금 (11 : 30~2 : 00 A.M)
토 (1 : 00P.M~2 : 00A.M)
일 (1 : 00P.M~10 : 00P.M)
주소 : 131 A DUNDAS W. (던다스×유니버시티)
전화 : 977-3452

학 생 모 집
본교는 연방정부에 신학교로 정식인가 됨에따라 금년부터 목회자 양성을 위한 M.Div.과정을 설치하고 일반정규 신학교와 같은 수업시간을 마련하여 아래와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원하시는분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모집학과 : 목회과○○명
* 자 격 : 대학졸업 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 학 제 : 3년(6학기이며 매학기 16학점)
* 수 업 료 : 1학점당 $30(입학금 $50은 별도)
* 수업일시 : 매주월요일 오후6시부터10시까지.
*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ROOM 311, 362
* 개강일시 : 1982년3월15일(월)오후6시
*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1월15일~2월15일 LEE'S PRINTING (2157 A WESTON RD. 244-2301)
* 기 타 : ①본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총회신학교(L. A 소재)에 1년 이수하면 목사로 안수받을수 있음.
②본교의 신과 졸업자는 몇개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수 있음.
③원서교부 기간동안 신청자가 5명이상 되지않을때는 보류됨.
④5명이상되어 개교된뒤 제출된 서류와 입학금및 수업료는 반환되지않음.
* 문 의 처 : 977-5202, 244-2301, 281-5706 1982년1월10일
미주한인교장로회 캐나다 노회직영
칼빈신학교장 : 계 화 삼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울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2ND CLASS MAIL NO. 524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도난담배차량 발견
두용의자 입건, 절반은 남아

메트로 경찰은 지난 8월 발생한 50만달러어치 임페리얼담배회사의 도난사건을 수사중 그중 절반인 5백상자 25만달러어치가 적재된 문제의 트레일러를마캄과 쉐파드에서 발견, 용의자 2명을 입건했다.

파타임 운전사인 미시사가의 게빈·하나(25세)와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줄리안·유르키브(25세)는 장물소지혐의로 입건됐으나이들이 주범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월20일 딕슨로드에서 허즈번드 운수회사 담배운반차량 탈취범들이 담배를 옮기는데 또 다른 트레일러를 세냈음을 알아냈고, 크리스마스이브에 문제의 세낸 트레일러가 던다스·웨스트와 하이웨이 27의 플라자에 파킹돼 있는 것을 적발했고 지난 6일 입건된 두명이 스카보로의 마캄로드와 쉐파드의 공터로 트레일러를 끌어다 놓은 것을 발견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발당시 문제의 트레일러에는 500여상자의 담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퀘벡으로 운반중이던 담배를 탈취한 범인들이 담배를 암암리에 팔아 먹는데 곤란을 느껴 거의 포기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도난담배는 특정한 제조표기가 있어 도매상이나각 상점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있어 유통이 어려웠고, 그 때문에 각 도매상을 통해 이를 바꿔가던 일부 한인교포 상점주들과 이의판매등에 관련된 일부교민들이 입건됐었다.

담배사건 공판 2월 23일로

임페리알 담배사건에 관련, 입건·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공판이 2월23일 (화) 오전 10시 이토비콕의 주법정(80-Provincial Court 80 East Mall, Etobicoke)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각 피고들이 출정, 재판 날자를 정하는 것으로 그칠 것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은 3월중에나 시작될 것이라고메트로경찰 22디비젼의 페이지 경사가 12일 밝혔다.

살인혐의간호원재판
변호인 3명, 증인 57명

토론토의 어린이병원(식칠드런) 심장과에서 4명의 아기들이 투약과용으로 숨진 사건에 관련 기소된 간호원 수전·넬즈양에 관한 예비청문회가 11일 시작됐다.

25세의 넬즈양은 지난해 3월 그녀가 일하던 심장과에 입원한 생후 3개월, 4개월, 23일, 11개월된 4명의 아기들이 차례로 죽은뒤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아기들이 심장전문약 디 옥신의 과용으로 죽었고 이 사망아기들에 투약한 장본인이 모두 넬 즈양이었음을 추적해냈다.

오스트·쿠퍼를 비롯,3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출정한 넬즈양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보도관제로알려지지 않았다. 데이빗·뱅크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보도를 관제했다.

이번 재판은 1달이상 갈 것이며, 57명의 증인들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보호아래 재판정을 떠나는 넬즈양. 그녀는 작년3월 $5만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후 부모와같이 살고있다.

"인조혈액"으로 생명연장

(뉴욕)「인조혈액」이 사람의 목숨을 연장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앞으로 이 인조혈액은응급환자의 대용피로 등장할 것같다.

UCLA병원의 레지던트 케빈·트램퍼 박사는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미국마취학회에서 종교적 이유로수혈을 거부한 5명의 "여호아의 증인" 신도에게 인조혈액을 수혈함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들 5명의 환자가 궤양과 종양으로 출혈이심해 생명이 위독했으나「플루오솔」이란 인조혈액의수혈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녹십자회사 제품인「플루오솔」은 이미 일본내의 3백명 환자에 임상실험했으나 미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공항 신설
김포공항도 확장

(서울 12일=연합) 한국정부와 여당 민주정의당은 11일 날로 증가하는 여객과 화물량 해결을 위해 91년까지 중부지방에 새국제공항을 지을 계획을 마무리지었다.

아울러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대비, 김포 국제공항도 확장하기로 결의했다.

민주정의당(민정당)의봉두완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공항의여객과 화물량 취급 능력이 85년, 86년까지 각각 한계에 도달, 새 공항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봉대변인은 새 공항 신설부지는 기후, 지형및 기류등의 면밀한 검사가 있은 후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씨는 또 보안상 이유와 수도 서울지역의밀집인구 분산의 필요성으로 새 공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설될 것이며, 올부터 건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민동정

◆서인현(축구협회 임원)=킹스톤에서 가게를 경영하는 한편 오전에는 도미니온·씨트러스·드럭회사에서 야채및 과일 세일즈맨으로 활약중이다. 교포 중에서 과일및 야채를 원하시는이는 259-5481로 연락하면 된다.

◆김유수(댄스교사)=과거 수차례 교민 사교댄스 강습을 개최했으며, 금년에는 1월29일부터 4월까지 초보자, 중급반을 위해 원도미어·유나이티드교회에서 강습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비는 싱글 $40,부부는$70

가정의 벗 한국일보

◇서정길 회장

태권도협회 제4대 회장에 서정길 7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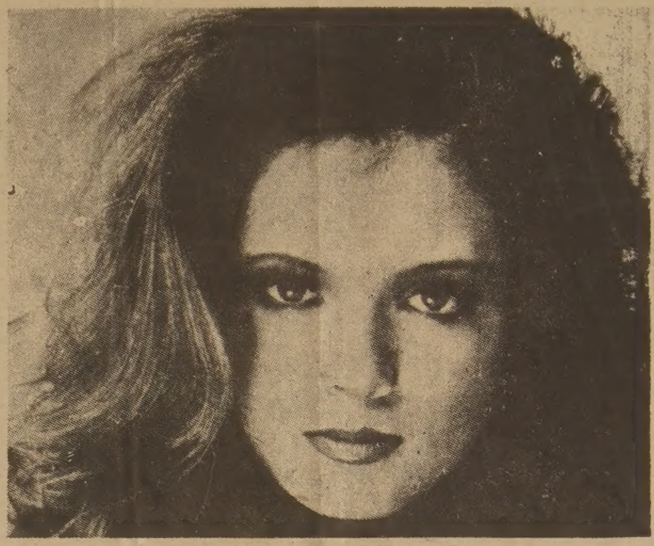
지난 9일 아리랑하우스에서 열린 제4회 태권도협회 정기총회는 새 회장으로 서정길(신임), 부회장 오충원(신임), 사무총장에는 한만수(유임)씨를 각각 선출했다.

임원임기는 1년으로, 과거 2년간 정기태 사범이 회장으로 역임했었다.

뉴욕모델가에 새 "섹스심볼" 등장
브룩쉴즈 뺨치는 타마라·존스양
갈색눈·브론드머리 11세소녀

브룩쉴즈를 능가할 깜찍한 용모에 요염한 자태를 갖춘 소녀모델이 나타났다.

뉴욕 모델가의 새로운섹스심볼로 등장한 올해 11살난 꼬마소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마라는이미 20여개의 TV 광고물에 출연했으며, 수많은 잡지 광고에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인기세에 힘입어 그녀의 모델료는 시간당 1백50달러를 호가, 연 7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브룩쉴즈를 능가할 타마라·존스

갈색눈에 블론드색 긴머리, 5피트3인치의 키에 85파운드 몸무게등 모델로서는 알맞는 요소를 갖춘 타마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브룩쉴즈의 명성도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침례교 목사의 딸인 타마라는 지능지수가 1백60이나 돼 머리좋기로도 유명하다.

「나는 모델서는 것이 참 즐거워요. 사람들이 예쁘게 화장해 주고 멋있는 옷도 입혀주면 꼭 공주같은 기분이 들어요. 거기에 돈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동화속에 나오는 공주같은 역할에 무척 만족을 느끼고 있다.

타마라는 5살때부터 모델학교에 다녔으며, 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수업을 마친 후에 모델 서는일을 계속해 왔다.

「엄마는 학교수업과 숙제에 대해서 무척 엄격해요. 또 어디 가고 누구 만나는지도 꼭 말해야 해요」엄마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타마라는 나이도 어릴뿐더러 아직 남자친구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브룩쉴즈가 10살에 나체모델을 섰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라며 누드모델에대해서 야무지게 잘라 말했다.

뉴욕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는 타마라는 2주일에 한번씩 마이애미에 있는 아버지와 언니를 만나러 간다.

타마라는 2월2일 CBS-TV에서 방영할「채퍼랠 왕자」에 출연, 영화계에도 데뷔했다.

말하는 책 (Talking Books)
제5계절

유형승
메트로토론토도서관 서지조사부장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길고 무료한 겨울밤에 사랑이나 안방에서 이야기꾼이 들려주는「토용전」이나「유충렬전」등을 들으며 잠안오는 밤들을 달래셨었다.

요새는 이야기꾼들이 대치되어 안방극장 텔레비가 그 대역(代役)을 맡아하고 있으나, 그 운치에 있어서 이야기꾼에 비교가 될 수 없겠다.

운치뿐 아니라 눈어두운 노인들이나 또는 약시자(視弱者), 혹은 맹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말하는 책은 없을까?

이런 것에 착안하여 이곳 도서관에서는「말하는 책(Talking Books)」을 제작하여 책을 자유로이 읽을 수 없는 분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종교, 역사, 전기(伝記), 여행, 시, 수필, 소설은 물론 소비자를 위한 정보나 Reader's Digest 등 몇몇 잡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들은 카셑에 녹음되어 있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기계가없는 분들에게는 단기간 기계도 대여해 주는 제도인데,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이런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Kurzweil Reading Machine은 인쇄된자료나 타이프된 편지나 문서등을 읽는 전자장치의 기계로서 약시자들이나 맹인들이 도서관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신체장애자들의 독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나 기구에 우리 한인사회가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또 알려졌는지 모르겠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 이런 기구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으나우리가 노쇠하면 자연히 시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니많은 수의 노년회원들을 가진 우리 한인사회에서도관심을 가져볼만한 일이라생각된다.

얼마전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도대체 인권(Human Right) 문제는 정치적인 것에만국한된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퍽 공감을 한 일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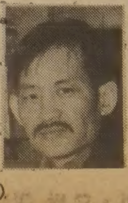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볼 수 있는 신문이나 또는 강연등을 통하여 정치적인핍박이나 억압으로 인권을유린당한 것에 대한 기사와 비판등을 수없이 보고 듣게 되는데, 우리 주변이나 이웃에 있는 신체장애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살펴 줄것인가? 그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읽거나 듣거나 하여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먼 곳에 있는 인권문제뿐 아니라, 가까운 곳의 인권도 중요시하여 교회와사회단체들이 합심하여 우리말을 하는 책들을 제작, 보급함으로 말이나 글로써가 아닌 실제적인 인권회복의 기수가 되었으면 얼마나좋을까

<지상토론>

비판에 대한 답변을 재비판한다

박 찬 도
(전 한인회 부이사장)



◇박찬도씨

본란은 지난 10월 서만수씨가 "코리안 파워"란제목의 독자기고로 시작된전 한인회 부이사장 박찬도씨와의 비판 마지막분으로 글의 내용이나 관정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지상설전은 쌍방 2회씩의 공박으로 끝을 맺는다.

우선 내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어 고맙다. 서로 비판을 함으로써 우리는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내글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듯 하니 미안하다. 내 본의는 아니었으니 양해하기 바라며 불쾌하였다는 점에 대해 사과한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옳은가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옳은것을 좋아해야할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옳음이 세상을 옳게(협조, 단결)할 것으로 생각, 그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옳음과 좋음이 진실로 옳은것이 아니었을때는 세상이 옳게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특정인은 그것이 옳은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될것 같은데 안된다. 그것은 우리의 5천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나는 서씨가 현재의 마음으로는 진심을 말하고있다고 믿는다.

그 진심의 마음이 우리의 전형적인 마음의 잘못됨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지면도 아니고 계제도 안된다.

다만 할말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생각하고 말이나 글을 할 때 자기 합리화보다는 객관 공정한 입장에 서서 하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 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인교회가 13년만에 깨졌다. 13년 동안 조용했고 교인들이 목사를 우러러 본듯했고 교인의 신앙심은 깊어간듯 했고 교회는 발전해가는듯 했지만 그 협조 희생 봉사가 무의미했다는 것. 그리고 박정희씨가 근 20년간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은 조용한듯 했지만 하루 아침에 박정희씨도광주시민도 한국경제도 깨지고 한것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고 한인교회 목사나 박정희씨만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원인은 또한 곡절많은 과거 역사에 있기 때문이다.

희생, 봉사, 협조, 발전 그리고 반석같이 굳은 지반이 영구불변한 것같더라도 그것이 소용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적 안목에서 생각되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란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무엇을바라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희생, 봉사, 협조, 단결, 발전이 덮어놓고 좋은것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기심은 많고 이타심은 적은 마음에서 사랑, 협조, 희생, 봉사, 발전을 아무리 외쳐도 일시적 부분적 사업의 성과는 있을 망정 영속적 종합적 성과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릇된 마음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튕겨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마음을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본다.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아 역사를 바르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마음자체에 이타심(사랑의 마음)이 늘어,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못 마땅하게 느껴지는 일에 대한 불쾌감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영속적종합적 발전을 이루고, 변함없이 참된 희생, 봉사, 협조, 단결을 이루게 되는길이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발전된 생각이다. 또 희생, 봉사, 협조, 단결을 아무리 외쳐도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진짜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것이 또한 나의 발전된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구체적인 표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충 말하면 "잘해라" "희생, 봉사, 단결하라"보다는 " 무엇이건 하고 싶은대로 자유 로이 하십시오" 그러나 덜 잘못하기 바랍니다" "잘해주어서 고맙습니다"로 바뀌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잘못을 하였드라도 분노, 응징의식없이 이같은 표현이 나와야 한다.

마음 자체에 이타심이느는것은 사랑의 베풀음이요, 자유를 줌이요,「잘못을너그러이 받아들이는 이기심 인정」이다.

자유를 줌이 협조 단결의 길이지, 협조 단결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여하간 젊은 사람에게불쾌하게끔 자극을 주어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하고 그점에 대해서 진심으로사과하면서 이글을 맺는다. 서만수씨의 건투를 빌며앞으로 더 많은 대화가 오고가기를 바란다.

주 간 여 성
인기절찬 판매중!
1월 3일자

新年 특대호
주간女性

우리집 개들중엔 영국 紳士·가정에 淑女도
—「大가족 어머니」盧東珠 여사의「개禮讚」
趙容弼·혜은이의 新年 대담
處女 스타들의「結婚 조건」
한국 찬송가 만든 羅運榮씨
新年 단편小說 새해 아침
주부 金善東씨의「書道세계」
김진희씨의 文壇 지각데뷔
女子배구 3총사, 靑春 고백
(탤런트 兪知仁)
世紀的 스캔들의 女王 엘리자베드·테일러 評傳
미모 國樂人 安香蓮씨의「죽도록 사랑해」全部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 착 순

(35명중 27명접수필)

※접수 할 때 회비를 함께 보내주십시요
● 퀘벡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명산 "MT. 세넹"으로
● 1월29일(금) 오후6시30분출발(브랜돈 스포츠사) ➜31(일)귀환
● 그레이·하운드 버스여행
● 회비 : 개인당 $180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
한국일보 사

성가대 지휘자 청빙

믿음과 사명감으로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분은 연락 바랍니다.

자 격 : 교회 세례교인 5년 이상된자
합 창 : (성가대)지휘경력 3년이상 된자
음악전공하신분
※참고사항 : 1. 본교회성가대 40여명
2. 본교회는 T.V. 선교방송 제작 및 운영을 함.

구비서류 : 1. 이력서한통
2. 사진 1매

전화 : 교회사무실(박희민 목사)
(416) 535-6864
음악 위원장(김정수 장로)
(416) 633-9341(항상연락할 수 있음)

주소 : 1183 DavenportRd.

토론토한인장로교회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현상모집 —

◁제5회 "신춘문예" 심사평▷ (2)

"양"보다 "질"향상을

이 석 현(심사위원장)

◁부문별 강평▷

(1) 단편부

2편의 단편이 응모된 것은 양적후퇴를 뜻한다.

◇「다섯 손가락」(박지연)

예선을 통과한 작품이나 아래 결점탓으로 본선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야기전개가 일직선 이고, "상"이 산만하며, 단편의 특장인 집약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엮은 의도(테마)가 분명치 않다.

기교면(문장력)은 평가받을만큼 세련되고, 묘사능력도 있음을 인정하겠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유명철)

장장 71매라는 긴 스토리를 엮어낸 저력을 과시한 작품이나, 사건 전개가 철두철미 설명투인 점이결정적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묘사가 아니라 철저한 해설투 이야기다.

제목부터가 응모 문예용으로는 실패이고, 필자(주관적 주장)가 너무 자주표면에 노출되는 것은 서투른 수법이다.

실연에서 술 퍼마시기—그리고 집에 오기까지의설명이 지루하게 장황하다.

마지막 첫애인과의 재회(다시 만남)도 부자연스런 진부한 설정이다.

스피디한 사건전개와 전환등의 기법을 익혀야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

(2) 수필부

◇「그리운 진아에게」(이미영)

서정미가 풍기는 편지투의 감상문.

그저 아름답고, 차분하게 공감이 가는 글—그것 뿐이다. 거기서 한발 더 나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 작품이 예선을 무난히 통과했으면서도 본심에서 밀려난 것은 소녀의 꿈담은 서정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었다.

적어도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수필쯤이면 문제성을 던져주거나 새로운 문학의 세계 전개가 있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건 문제작을내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3) 희곡부

◇「다시 찾은 고향」(변옥주)

문협신춘문예사상 처음 응모된 희곡이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을 끌었다.

외형적으로는 각본의 구색을 갖추었으나 무대 암전 처리도 줄여서 재구성해야 박진감을 더할 것이다.

마지막 대목을 빼고는 극적요소 빈곤을 느끼게 해준다.

대화극같이 대화 나열에 그친 인상을 주는 것도 작품으로서 실패의 원인이된다.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현상응모작으로는 이야기성이 지나치게 평범하다. 고국이 그리워 귀향하여 직장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밀려나자, 다시 고향을 등진다는 극히 대수롭잖은 내용이다.

75매 길이의 각본이면꽤 묵직한 것을 담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뭏든 내년을 기대해본다.

(4) 시부

들어온 시작품 18편중에 선통과작이 4편이다. 따라서 심사평에서도 이 4편을 다루기로 한다.

◇「꽃」(장병환)

시에 익은 솜씨이다. 매끈하고 자신있는 서술이나, "연"마다 쭉 이어간 접속투가 산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게 불만이다.

비유—상징적 비유의 연속으로 끝에 가서 꽃을 규정했는데, 그것만으로는입상시가 되기에는 미달이었다.

아깝게 입상에서 밀려났다.

◇「방랑」(이유식)

구투에 평명적 나열! 이것이 이 시의 흠이다.

시로서 승화시키 기에는 압축과 암시적 은유와 비약(군더더기 없앰)이 부족하다.

◇「추운 들녘」(정상진)

한폭의 아담하고 서정어린 풍경화를 보여주는소품.

정경묘사에 그치고만 박력미달이 현상시로서의 역부족을 보여준다.

시는 설명이 아니요, 묘사에 그쳐서도 불만이다. 이미지의 직설적 전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끌편은 인상적여운을 던져준다.

◇「고 목」(정봉희)

4편을 보내와 문학도다운 정열을 보여 주었다.

감성이나 지성면에서 미숙한 구석이 엿보이는대로 산뜻하고 소담한 작품이다.

고목—그 실상(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유연한 삶의 자세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다.

시 창작에는 (1)보는눈((남이 못보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관찰) (3)보다 싯적인 표현,(4)풍부한 시어,(5)시 구성능력이 고루 갖추어져야 비로소 자신있게 주옥편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시「고목」은 호흡이 짧고, 비중이 크지못한 소품이어서 "당선"에는 미달, "가작"에 그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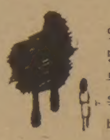
문학창작의 길에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피나는 노력의 연속—꾸준한 대결의 연속 그 뒤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공든 탑이 바로 작가의 프로세스인 것이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것—이 평범한과정의 되풀이 속에서 자연히 작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5회신춘문예 입상시〉

: 가작 : **고 목**(古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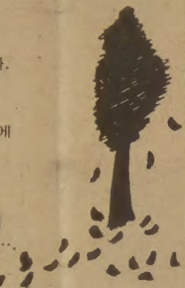
정 봉 희



있어온 우리들의 전설.
망각해야 할 하늘의 서정을 이고
무시로 스쳐가는 세월 속에
육박해 오는 자연의 절규를
버티어 나온 오늘.

끝내 잉태할 수 없는
후예들의 목숨을 내포한채
너는
피멍 맺힌 자세로
굳어가는 입상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
우러러 천년을 살아온 소망 앞에
기도하는 여인
그 언제부터인가
너의 육신 앞에 섰던
이름 모를 사람들의 마음바닥에
서정의 강물이 흐르게 된 것을….



〈시부 가작 : 입상소감〉

원색의 조화를

파란 서슬 맺힌 이 납빛 겨울을 비집고 화사한 봄빛을 안은 조용한 강안벌이라도 배회하고 싶다.

밤깊은 흐린 등잔아래서 고귀한 젊음을 불태우다보면 이쁜 다슬기도 보고, 여린 몰 무늬도 찾으리라던 은사님의 다독거림이 내작은 뇌수를 비틀거리게 한다.

이 백설위에 혼자만의서성거림도 잊은채로 피를묽이는 고해의 습작을 밤마다 달래고, 늘 사랑하면서 오늘 모처럼 쩌든 웃음을 찾아도 보았다.

거부받지 않고 살아온 내 인생의 연극이 원색의 조화를 이룬 오늘이 있기까지 배려해 주신 고국의 은사님과 눈이 큰 아이에게 조용한 미소와 손모음올드리며, 끝으로 미비한글 뽑아주신 문협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함 드린다.

◇정봉희씨

파랑새의 둥지를 쫓아더 많은 채찍과 조언 기대하면서 새해엔 푸른 청모시빛만 응시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의 눈을 저에게도 주시길….

1981년 12월 29일

◁정봉희씨 약력▷

- 여천군 돌산면 출생
- 여수여고 졸업, 전남대 재학중, 81년 4월 이민
- 현재 욕그드칼리지에이트 재학중
- 여고시절 한글 백일장 장원으로 2번 당선 〈전남일보〉사 추천으로 시『창』이 장원으로 당선됨 그밖에 등등….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116)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 지점부터는 타이렐씨의 지도가 필요없게 되었다. 그의 지도를 보면 그는 다른 길목을 이용했는지 그가 지나간 길을 표시해 놓지를 않았다. 우리는 타이렐씨가 답사한 곳으로 알려진 좁은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쪽으로 돌아 타이렐씨가 보지 못한 또하나의 앙쿠니만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하늘은 구름 한점없었고 햇볕은 따가웠다. 호수의 찬물은 찌는듯한 열로 안개처럼 수면이 녹아 올라왔다. 산밑으로 낮게 펼쳐진 땅은 우리들 앞에 끝없이 전개되며 번쩍이는 신기루처럼 변화무쌍했다.

주위에서는 노젓는 소리와 카누의 뾰죽한 앞이 물밑을 가르는 잔잔한 소리 이외는 아뭇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호수는 딴세상의 완벽한 고요함으로 죽은듯이 얼어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섬들은 소리도 없이 물위로 닥아오른 바다괴물처럼 우리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섬들은 수평선위로 선명하게 나타나더니 신기루같은 영상이 지워지면서 공중으로 희미하게 뜨는 것처럼 보였다. 꾸불 꾸불한 호수연변은 우리들로 부터 멀리 보여서 실제거리가 1마일인지 10마일인지 거리감각을 잡을 수도 없었다. 앙쿠니 레이크는 현실과유사한 점이나 구체적인 형태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호수의 가장자리와 섬들은 눈을 속이며 환상을 보게 만드는 특성을 지녔고 카누를 타고 지나친 것을 전혀 기억해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신기루같은 주위환경은 우리를 모두들 몽롱하게 잠시도 쉬지 않고 바뀌는 꿈속으로 이끌어 가는것만 같았다. 그때 오호토가 갑자기 우리들의 물밑을 가리키며 "쿠위"하고 소리질러서 들여다보니 작은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이 전혀 느끼지못하는 감각으로 오호토는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작은 강물의 흐름을 알아냈던것이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카누를 돌려 햇볕에 번쩍이며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언덕쪽으로 저어갔다. 우리가 육지라고 생각된 곳으로 다가가서 보니 거기는 부서진 바윗돌로 밑이 깔려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카누가 강물에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간 카누가 떠내려간 후에 밑에 있는 바위를 노를 가지고 건드려 보니 우리가 찾고 있었던 강줄기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흘러내려온 물의 흐름세가 깊은 호수물에 섞여버리기 전에 잠시 계속하는 은밀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오호토가 이름을 붙여준 쿠위강은 잔잔하고 상쾌한 인상을 주었다. 이강은 어떤 백인도 가보지 못한 바렌의 중앙부에서 서북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사슴이 올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흘러 내려갔다.

〈계 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삼복식품 신년세일

- 경기미 쌀(20kg) $22.50
- 전감(통태, 1BOX) $25.—
- 한국산참기름 $7.99
- 사꾸라 우동 1BOX $12.95
- 물오징어 1BOX $16.50

※이외에 100달러이상 사시면 5% 할인해 드립니다.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올 公務員채용日程등 확정

總務處 모두 3,660명 分野別로 시험

9級 4월18일 1次시험 (技術職은 3월21일)

司試(300명) 6월13일 行試(110명) 9월26일

정부는 올 한햇동안 法官과 5、7、9級등 各級국가공무원 3천6백60명을 선발, 任用키로 하고 이를 위한 司法시험과 각급국가공무원및 軍法務官임용시험계획을 확정, 8일 발표했다.

연고지 長點살려 7급도 地域別모집

총무처가 확정한 이계획에 따르면 선발인원은 ▲司法 3백명 ▲軍법무관 30명 ▲5급(행정、외무、기술高試) 1백70명 ▲7급5백명 ▲9급2천6백60명등 모두 3천6백60명으로 돼있다。

국가공무원의 분야별 모집인원을 보면 5급(종전 3급乙)의 경우 行政高試 1백10명(일반행정 75명、敎育 10명、社會 10명、財經 15명)、外務高試 20명、技術高試 40명이며 7급(종전 4급乙)의 경우는 行政職2백30명、稅務職 1백명(內國稅 80명、關稅 20명)、監査職 30명、矯正職 20명、檢察사무職 20명、技術職 1백명등이다。

또 9급(종전5乙)의 분야별 모집인원은 行政職의 경우 일반부처 5백50명(男4백95명、女55명)、체신부2백70명(男2백10명、女60명)이며 稅務職의 경우는 內國稅분야3백50명(男3백20명、女30명)、關稅분야 1백명(男95명、女5명)、矯正職1천2백40명(男1천2백20명、女20명)、검찰사무職50명、기술직 1백명등이다。

이번 시험실시계획에 의하면 司法시험은 5월3일부터 8일까지 願書를접수、6월13일 1차시험을 실시하며 금년부터 ▲일반행정▲財經▲敎育▲社會등 4개분야로 나누어 선발하는 5급행정시험은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원서를 접수、9월26일 1차시험을 치르도록 돼있다。

또 5급외무시험은 원서접수가 제일 빨라 오는 1월25일부터 30일까지、1차시험은 2월7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에 실시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은 緣故地근무의 장점을 살리기위해 80년이후 9급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지역별 모집을 7급에까지 확대、실시키로 했고 응시자격에는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응시자격 연령은 ▲행정·기술고시가 만20세이상 40세이하 ▲외무고시는 만20세이상32세미만(단 81년도에 시행한 외무고시 1、2차시험 합격자는 만40세까지) ▲7급은 만20세이상 35세이하 ▲9급은 만18세이상(矯正職은 만20세이상) 28세이하로 각각 정했다。

◇82년도 各級공무원 任用계획표

시험 \ 구분		선발인원	願書접수	1차 시험	1차 발표	2차 시험	2차 발표	3차 시험	3차 발표
司法		300명	5·3~8	6·13	7·14	7·20~23	9·4	9·16~17	9·25
軍법무관		30	5·10~15	6·20	7·14	〃	8·10	8·20	8·26
5級	行政	110	8·23~28	9·26	10·22	11·3~6	12·8	12·21~22	12·30
5級	外務	20	11·25~30	2·7	2·20	3·2~5	3·26	4·9	4·17
5級	技術	40	9·6~11	10·17	11·4	11·9~13	12·11	12·23	12·30
7級(主事)	행정	230	7·5~10	8·29	9·30			10·12	10·28
7級(主事)	稅務	100							
7級(主事)	監査	30							
7級(主事)	矯正	20							
7級(主事)	檢察사무	20							
7級(主事)	기술	100	2·15~20	3·21	4·30			5·21	6·5
9級(書記)	行政	820	3·8~17	4·18	6·30			7·30	8·20
9級(書記)	稅務	450							
9級(書記)	矯正	1,240							
9級(書記)	검찰사무	50							
9級(書記)	기술	100	2·15~20	3·21	4·30			5·21	6·5

敎育공무원俸給 9%인상

手當(敎初中高職) 4만5천원으로

閣議의결

大學總學長·교육감은 4·5%

국무회의는 8일 초·중·고교교사및 대학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현수준에서 9%범위에서 인상하고 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을 현재 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하는내용의 교육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을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봉급인상에서(별표참조) ▲교육공무원의 봉급을 9% 인상하되 ▲대학총장및 학장(대학교의 단과대학장제외)·교육감은 그절반인 4·5%、2년제교육대학장및 전문대학장은 5%만인상하며 ▲오는4월부터 봉급과 별도로지급받던 교원교재연구비(대학교원 월5만원、초·중등교원 월3만3천원)와 연구직교육공무원연구수당(월3만3천원~5만원)을 봉급에 통합시키기로했다。

교재연구비및 연구수당의 봉급통합 조정은 교육공무원이 매년 6、9、12월에받는 기말수당과 7월에받는 정근수당을 그만큼 증액시키는결과가된다。

정부는 또 수업을 직접맡고있는 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을 1월부터 월3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교과지도비를신설、초·중등교원월1만5천원、대학교원월 2만원을별도지급키로했다。

黨총재 秘書室長등 全대통령이 任命狀

民正黨 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8일상오 靑瓦臺에서 李漢東신임 民正黨총재비서실장과 朴權欽정책위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사진> 이자리에는 權正達 民正黨사무총장이 배석했다。

3黨대표 11일會同

國政전반 意見교환

李載瀅 民正黨 대표위원과 柳致松 民韓、金鍾哲 국민당 총재등 3黨 대표는 오는11일저녁 모임을갖고 새로운內閣의출범에따른새해國政전반에걸쳐의견을나눌예정이다。

3黨대표들의 금년 첫모임인 11일의 회합에는 黨政협조문제와 국회운영、경제難局타개를위한 협조방안이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專門大學및 大學敎員俸給表(82·4月施行)(單位 千원)

號	級	專門大	大學
特1	1		727
	2		609
特2	1	497	530
	2	474	502
1	1	473	499
	2	459	484
2	1	445	469
	2	431	454
3	1	416	439
	2	401	422·5
4	1	386	406
	2	371	389·5
5	1	356	373
	2	341	356·5
6	1	326	340
	2	315	327
7	1	304	314
	2	293	301
8	1	282	288
	2	272	277
9	1	262	266
	2	252	255
10	1	242	244
	2	232	233
11	1	222	222
	2	215·5	215·5
12	1	209	209
	2	202·5	202·5
13	1	196	196
	2	189·5	189·5
14	1	183	183
	2	176·5	176·5
15	1	170	
	2	163·5	

※4월이후 特2호급 까지는 3만원、그이하는 5만원을 각각 합한 액수가 봉급이됨

◇初·中等學校 敎員俸給表(82·1~3月시행)(단위 千원)

號俸	現行	調整內譯 俸給	引上	率%	昇給
1	381	417	36	9·4	21
2	362	396	34	9·4	〃
3	343	375	32	9·3	〃
4	324	354	30	9·3	22·5
5	303·5	331·5	28	9·2	〃
6	283	309	26	9·2	〃
7	262·5	286·5	24	9·1	〃
8	242	264	22	9·1	〃
9	221·5	241·5	20	9·0	19
10	204	222·5	18·5	9·1	〃
11	186·5	203·5	17	9·1	〃
12	169	184·5	15·5	9·2	〃
13	151·5	165·5	14	9·2	5·5
14	146·5	160	13·5	9·2	〃
15	141·5	154·5	13	9·2	〃
16	136·5	149	12·5	9·2	〃
17	131·5	143·5	12	9·1	〃
18	126·5	138	11·5	9·1	〃
19	122	133	11	9·0	〃
20	117·5	128	10·5	8·9	〃
21	113	123	10	8·8	〃
22	108·5	118	9·5	8·8	〃
23	104	113	9	8·7	3
24	101	110	9	8·9	〃
25	98	107	9	9·2	〃
26	95	104	9	9·5	〃
27	92	101	9	9·8	〃
28	89	98	9	10·1	〃

※4월부터는 이 표의 봉급액+3만3천원이 봉급액이됨

"施策、下位까지 정확히 傳達"

劉총리、첫閣議주재

劉彰順국무총리서리는 8일하오 취임후 첫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정부施策이나 상급기관 또는 상사의 각종지시가 철저히 이행되지않거나 일선관서 또는 下位공직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앞으로는 정부시책을 下位공직자에게까지 각급기관장의 책임하에 신속·정확히 전달함으로써 행정시책이 말단에까지 침투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劉총리서리는 이어『상급기관이나 上位직위자는 부하직원의 건의와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下意上達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하고 民願案은 전기·수도、응급환자처리등 야간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업무를 근무시간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火魔에 할퀸 世大製紙 骨組는 엿가락처럼

◇7일밤 11시59분께 화재가 발생, 전소해버린 世大제지 제품창고(群山市助村洞2)。철제골조만이 엿가락처럼 마구 흰채앙상하게 드러내 화마의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한다。이불로 신문용지등 종이제품 8천여톤이 소실돼 38억원의 재산피해를냈다。

8개品 割當關稅부과

나프타·벙커C油·펄프用材·原綿·古鐵등

絹系·윤활유등7개品 基本稅 50~百%올려

정부는 8일 彈力關稅率을 조정, 이제까지 非課稅되던 나프타 벙커C油(韓電및 일반용) 노멀파라핀、펄프用材、原綿、고철、해체용 선박등 8개품목에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割當關稅를 새로 부과키로 하는한편 絹絲·윤활유등7개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50~1백% 올린 緊急關稅를 적용키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올 상반기 탄력관세운용방안에 따르면 생필품 공급안정을 위해 생필품제조용 기초원료 16개품목과 染料및 그中間體16개등 32개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割當關稅를 적용키로했다。대상품목중 밀·콩·牛脂등 24개품목은 지난해 下半期부터 적용해오던 割當關稅率만 조금씩 조정、계속 적용하는것이고 벙커C油등 8개품목이 새로 1~2·5%씩 적용하는 것이다。

조정된 割當關稅를보면 ▲밀 2·5%(기본세율5%) ▲옥수수10%(20%) ▲大豆12%(20%) ▲콩油7%(20%) ▲牛脂7%(20%) ▲原糖kg당 54원(kg당 77원) ▲나프타 1%(5%) ▲벙커C油(한전용) 1%(5%) ▲벙커C油(일반용) 1%(5%) ▲노멀파라핀 2·5%(5%) ▲染料 5個種15%(20%) ▲中間體 10個種15%(30%) ▲天然고무 10%(20%) ▲펄프用材 2·5%(5%) ▲羊原木1%(5%) ▲原綿1%(5%) ▲고철1%(5%) ▲銅鑛石 1%(5%)등으로 되어있다。

한편 絹絲등 7개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보호를위해 기본세율을 올린 緊急關稅를 적용키로했는데 ▲윤활油基油및 윤활유45%(기본세율30%) ▲가성소다플레이크 40%(25%) ▲[illegible] 아미드30%(20%) ▲絹絲45%(30%) ▲전기대패및 전기톱40%(20%)등이다。

그런데 이들탄력세율은 오는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대해 적용하게되는데 가성소다플레이크와 전기대패및 전기원형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것에 대해서도 연장적용된다。

레이거노믹스 世界經濟위협

美정책批評家 경고

【워싱턴7日UPI=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세계경제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정책비평가들이 7일 경고했다。

내셔널·폴리시·익스체인지라는 이름으로 새로발족한 한 정책연구기구는 이날 발표문을통해『레이거노믹스는 작동하지 않을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발표문을 작성한 매사추세츠工大(M·I·T)의 경제학자 로버트·솔로교수와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제임즈·토빈 예일대학교수는 레이건행정부의 조세감면조처가 완전가동되고 군비지출이 증대되면 경제촉발요인은 현금융긴축정책과의 충돌을 면치못할것이라고 말했다。

캄首相서리 찬·시 實權者펜·소반失脚

【방콕7日UPI=聯合】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공산캄보디아정부의 부수상겸 국방상 찬·시가 수상서리에 임명됐다고 방콕에서 청취된 캄보디아의 관영 SPK통신이 7일 보도했다。

찬·시의 수상서리임명은 과거의 실권자였던 펜·소반이 수상직과 혁명적인 黨首에서 동시에 제거되었음을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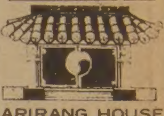
社會漫評

"좋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이것도…"

地平線

18세기말의 학자 朴齊家를 실학파라고도 하고、北학파라고도 한다。벌써 2백년전에 쓴 그의 글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더벅머리 총각 때부터 배워서 머리가 희어졌을 때 비로소 입시에 합격했지만、합격한 그날부터 그동안 공부한 것을 깡그리 버리게 되니 평생 정력이 이미 사그라졌고、나라에도 쓸모가 없다』▼朴齊家의 글에는 이런것도 있다。『독서하는 자가 글귀를 보면 시험제목만을 생각한다』『예전의 입시는 인재를 뽑으려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입시는 사람을 제한하려는 것이다』『나라에서 입시생을 뽑으니 이권과 봉급이 여기에 달렸고、功名도 여기서 나온다。이세상에 나서 이길이 아니면 할일이 없다』『지금은 많은 입시생들이 몰려들어 : 압사 사건도 있다』▼朴齊家의 이글들은 유명한「과거론」으로「과거」라는 말 대신「입시」、또는「입시생」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본 것이다。그러니까 18세기말 朴齊家가 한탄했던 과거의 폐단은 영낙없이 오늘날의 대학입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그옛날 선비들이 과장에 몰려들었듯이 전국 72개 전기대학에는 지금 입학원서를 찾아나선 입시생들이 줄지어 서고있다。▼그러나 그옛날 과장에 몰려든 선비들과 달라 지금의 입시생들에겐 새로운 고민거리가 있다。옛날의 선비들은 공자·맹자만 열심히 외면 됐지만、지금은 대학과 학과에 따라 인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어느 대학、어느 학과를 고르느냐 하는 고민이 생긴것이다。생각해보면 고민이랄것도 없는 고민때문에 입시생을 가진 집안마다 온통 법석이다。▼어느 학교、어느 학과냐하는 문제는 두말할것도 없이 자기의 적성과 현실적인 인생목표로 결정할 일이다。돈을 따지기로 말하면 앞으로의 직업전망을 봐야할 것이고、知的욕구를 생각한다면 그런대로 결정할 일이다。남의 눈치나 인기를 살필 일이 아니다。그러고 보면 각대학 입학 지망생들의 성적분포를 비밀로 하라는 당국의 지시는 그럴듯하다고 할수도 있다。▼문제는 18세기의 선비들처럼 지금의 입시생들도 진리탐구나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보다는「立身揚名」과 합격 자체가 목표라는 데에 있다。차라리 그럴 바에야 성적분포를 전국적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공개하는 쪽이 훨씬 합리적일지도 모를 일이다。아무 알맹이도 없는「눈치작전」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거꾸로 옛날처럼 각대학마다 주관식 시험을 또다시 부활시킬 필요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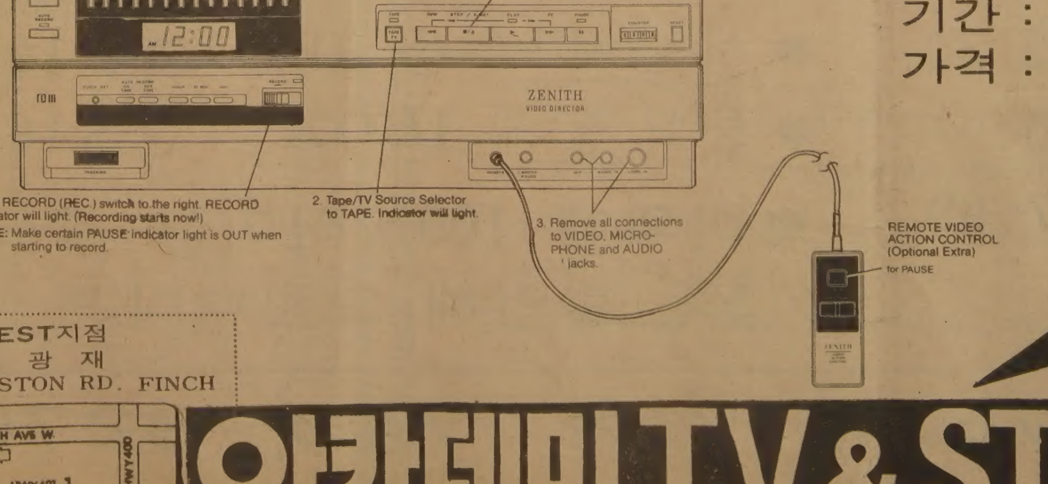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제니스 비데오



신년세일
— 제니스 비데오 —
기간 : 82년 1월말까지
가격 : $969.00(REMOTE CONTROL 포함가격)

ZENITH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韓半島유사시」協力대처

美·日 안보協議會 구체方案 연구키로

美、日基地사용등 要求

日野黨선 平和憲法들어 반대 注目

【東京8日=宋孝彬특파원】제18회 美日안보협의회가 8일 일본외무성에서 3년2개월만에 열려 극동유사시에대비한 美日간의 협력문제를논의했다.

◇유엔總長-蘇大使「골란」協議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左)이 7일 골란고원 문제에관한 安保理 토의에앞서 유엔 주재蘇聯대사 올레그·트로야·노프스키와 환담하고있다. 【유엔본부 7日AP電送=聯合】

미국측에서 롱美태평양사령관과 맨스필드 주일미대사가, 일본측에서 사꾸라우찌(櫻內)외상과 이또(伊藤)방위청장관이 참석한 이회의는 극동유사시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때 美日간의 구체적인 협력대처방안을 연구검토키로 했다.

60년이래 17차례 열린 美日안보협의회의 주제는 긴장완화속에 극동을 중심으로한 정치및 군사정세의 분석과 주일미군의 군사시설 반환문제등 평화정착을 위한 문제에 그쳐왔다. 그러나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과 北괴의 대폭적 무력증강에 따라 美日안보협의회는 양국간의 방위협력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었다.

76년 제16차 회의에서는 방위협력을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78년11월에 열린 제17차 회의에서는 일본에대한 직접 무력침공을 저지하기위한 「美日방위협력을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이번에 열린 美日안보협의회가 「극동유사시의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것은 지난17차회의에서 합의 결정한 「美日방위협력을 위한 지침」第3항 「일본이외의 극동의 사태에 관련, 일본이 중요한 영향을 받을때 美日간의 방위협력문제를 협의한다」는 조항에 따른것이다.

이조항에 따라 주일미군의 일본 기지사용과 수송협력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극동 유사시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극동의 평화와 안전은 위협되며 따라서 일본의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전제아래 일본은 주일미군의 활동을 적극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다.

일본이 직접 침략을 받았을때의 美日간의 협력문제는 작년 봄에 열린 양국간 실무자회의에서 검토가 끝났으며 일본이외의 지역인 극동유사시에 대비한 대책은 이번 처음으로 논의된것이다.

미국측은 한반도유사시에 대비하여 일본의 수송기와 국내항공및 항만시설의 사용과 더나아가 미군의 자위대기지 사용및 발진을 요구하고있으며 사회당을비롯한 야당은 專守방위인 평화헌법을 들어 반대하고있어 일본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올것인지가 주목되고있다.

美日공동 有事연구 日閣議서 着手승인

【東京8日=聯合】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내각은 8일 극동유사시의 美日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美日共同有事研究의 착수를 승인했다.

메아리

1982년1월1일 평양(아니 북한의 어디라도 좋다)의 「설날」풍경. 저들의 방송과 여러간행물에서 엿보이는 點描를 모아 재구성해 보면—.

모든 북한 주민은 구랍31일까지 소위「마지막 돌격전」이라는 고된일로 시달렸다. 그러다가 정월 초하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야했다. 제사를 지내거나 茶禮床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祖上을 생각하면서 淡酒를 올리고 촛불을 밝히는일은 벌써 오래전에 잊었다. 그보다도 잊어버렸다는말이 맞을것이다.

집안에 걸어둔 金日成의 초상화나 동네에있는 銅像앞에 나아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의 껍데기를 보고 엎드려 절한다. 아침9시, 이 살아있는像의 「新年辭」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온다. 온식구가 엎어앉아 「들음」 심정으로 접수」하고 그 肉聲을 「구구절절 심장깊이 새겨」 놓는다. 그리하여 새해에도 「혁명적 열의」를 가다듬는 것이다.

거리에는 새해들어 새로이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金正日)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수령님의 70회생일을 大政治祝典으로 맞이하자」는 선전선동 현수막이 나붙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하며 새해 인사를 겸치레로한다. 북한판德談도 이런부류에서 벗어난것은 없다.

이날아침에는 金日成의 生日만큼은 못하나 그래도 두둑이준 「새해선물」이란 이름의 「특식」을 조금더 배급받았다. 아침부터 방송은 82년이 金의 70회생일이 되는 해라하여 「온인류의 축제」가 있는해 운운하면서 勞力경쟁에서 모든인민이 공을세우고, 있는 忠誠心을 다 발휘하여 괴수와 「당중앙」(金正日)을 「자랑스레 해드리자」고 목이쉬도록 외친다.

이것이 북쪽의 「설」풍경이다.

12월21일부터 25일까지 惠山,咸興,新義州,海州등지서는 도별 궐기대회가 열렸고 거기서 모든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다짐 되었다. 그리하여 금년도 1·4분기 생산목표는 金正日생일(2월16일)까지, 상반기 목표는 金日成생일(4월15일)까지, 연간목표는 黨창건기념일(10월10일)까지 앞당겨 완수하여, 金父子에대한 「忠誠的報告」를 올릴것을 결의하였다.

그 뒤에서 북한주민은 얼마나 슬퍼해야 하고 얼마나 울어야 할까. 그래도 30일자 北韓「로동신문」은 북한주민이 「앞날에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았다」고 채찍질을 가하였다.

歸順 노동자

7일아침 북한노동자 김용준씨가 자유를찾아 눈보라속을 南으로 귀순해 왔다. 우리는 두손을 들어 뜨겁게 환영한다. 김씨야말로 앞날에 확신을 가지기위해 확신을갖고 넘어온 사람이다. 「어서오라, 나머지 북의 동포들이여!」

黨內進步·강경파 肅清

波계엄統治者들 蘇후원에 鼓舞

【빈7日UPI=聯合】악화된 폴란드경제를 지원하기위한 약 40억달러의 차관과 석유및가스공급 약속등 소련의후원에 고무받은 폴란드계엄통치자들은 7일 민주개혁운동을추진해온 당내진보파와 노동자소요에 책임이있는 강경파들에대한 숙청작업을 시작했다.

바르샤바TV는 이날 폴란드7개省의 黨政관리들에 대한 일련의 기소사실을 보도했다.

이TV는 프란치제크·카임前부수상、우제니우즈·도스토에프스키前판사협회장이 기소되었다고 밝혔으나 다른9명의 이름과 그들에대한 기소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폴란드 고위소식통들은 또 카토비체 남부공업지역의 강경파보좌관이 해임됐다고 전했다.

안드레이·지보스키로 알려진 이당지도자는 야심만만한 강경파로 잘알려져있으며 이지역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공장 규모도 그의 강경대응방식에 기인한것으로 보도됐다.

◇눈보라속에 버려진 한 波軍政 희생자

비상사태 선포이후 자유노조가 가장 강한 저항을 한 폴란드남부 공업도시 그다니스크의 거리。경찰과의 충돌직후 펑펑 쏟아지는 겨울 눈속에 한 희생자가 누워있고 동료들이 황급히 달려오고있다。이 희생자는 절명했다。지난해 12월16일 AP통신기자가 찍은것으로 최근 공개됐다。

政治犯등 重刑선고 波 略式裁判회부

【바르샤바7日UPI=聯合】폴란드계엄당국은 지난12월13일 계엄령이 선포된후 총4백24명을 약식재판에 회부했으며 이중 42명의 정치범을 포함한 70명이상에게 중벌을 선고했다고 폴란드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루두가 7일 보도했다.

트리부나·루두紙는 이들범법자들은 계엄령하에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들이며 더 특히 정치범들은 계엄당국이 금지한 각종 파업이나 항의운동을 선동·주도하거나 조직한 자들이라고 말했다.

對波經協 전면保留 日、쌀供給등은이행

【東京7日AP=聯合】日本정부는 폴란드에대한 신규경제협력을 전면 보류하기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東京주재 폴란드대리대사 스타니스와프·스코프론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그같이 밝히고 그러나 2만톤규모의 쌀공급을 포함한 기존계약은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外信안테나

◆美 徵兵등록제 延長실시

레이건美 대통령은 7일 징병등록제를 연장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징병등록제의 계속실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군사인력수급을 연구해온 단체의 권고에따라 이제도를 계속 시행할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워싱턴=AP】

◆波副首相막내아들도 亡命

스페인내상은 6일 폴란드 계엄령이 선포된당시인 지난 12월13일께 23명의 폴란드선원및 그 가족들이 스페인에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30일이후 또다시 스페인거주 폴란드인 1백41명이 정치적망명 또는 난민지위부여나 아니면 제3국으로의 이주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마드리드=AP】

佛、니카라과에 武器공급

海軍장교·空軍조종사 招請훈련도

【워싱턴8日AP=聯合】미국을 방문중인 샤를·에르뉘 프랑스국방상은 7일 프랑스가 니카라과에 『非공격용』군사장비를 공급하는외에도 해군장교와 공군조종사 각10명씩을 프랑스로 초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르뉘국방상은 이날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과의 회담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와인버거장관이 프랑스의 對니카라과 군사장비공급계약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와인버거장관의 입장을 이해하고있다』고 말하고 『미국—프랑스관계』특히 군사협력관계는 진실·신용·상호신뢰의 바탕위에 서있기 때문에 모든일이 철저한 공개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프랑스는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와인버거장관과의 회담에서 프랑스정부의 對니카라과 군사장비판매정책을 설명했다고 말하면서 1개월전에 체결된 對니카라과 군사장비 판매계약은 공격용무기판매를 위한것이 아니라 경찰장비、민간용헬리콥터등을 제공하기위한 것임을 와인버거장관에게 주지시켰다고 밝혔다.

美、開途國원조적다 前世銀총재 비난

【워싱턴7日UPI=聯合】미국의 對개발도상국원조수준은 미국의 富와 비교해볼때 『참으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적다고 로버트·맥나마라 前세계은행(IBRD) 총재가 7일 말했다.

맥나마라 前총재는 이날美브루킹즈연구소에서 열린 IBRD의 장래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당초 對最貧國차관공여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제2의세계은행)에 10억달러 이상을제공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미의회와 행정부가 이를 7억달러선으로 삭감함에따라 기타 자금지원약속국가들도 처음의 약속금액을 동률로 삭감할것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美·佛국방상 合意 對蘇 군사장비용 컴퓨터등 高度기술 輸出통제를 強化

【워싱턴7日UPI=聯合】미국과 프랑스는 7일 소련군사장비현대화에 절실히 필요한 컴퓨터및 마이크로 전자부품등고급기술의 對蘇수출에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미국을 방문중인 샤를·에르뉘 프랑스국방상은 이날 4시간에 걸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끝내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고도기술이 아무 제약도 받지않고 소련으로유출되는것은 소련의 군사력강화에 뜻하지않은 「횡재」가 될것이라고 지적、고도기술의 對蘇 유출제약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즈顧問 축출하라 일부 白堊館보좌관

【워싱턴8日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의 보좌관중 일부가 에드윈·미즈 대통령고문을 법무장관 정도의 직책으로 백악관밖으로 내보내라고 주장하고있다고 8일 워싱턴·포스트紙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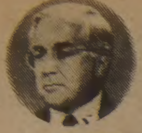
포스트紙는 익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이같은 움직임은 클라크국무차관이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으로 임명된데서 비롯된 백악관재구성작업의 제2단계라고말했다.

미즈고문을 백악관밖으로 몰아낸다는것은 미즈、베이커、디버로구성된 소위 백악관3인체제의 종막을의미한다.

한국의 警戒는 美言論의 對韓觀

白堊館 安保보좌관 交替의波長

親韓派 앨런 辭退했어도 큰영향 없어 레이건의 友好자세확고 新任클라크도 大勢견지



◇리처드·앨런

◇윌리엄·클라크

【워싱턴8=韓泰燮특파원】親韓派로 알려진 리처드·앨런이 白堊館안보담당보좌관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한국이 걱정할것은없을것같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미국무성의 한중견관리는 全斗煥대통령의 訪美초청에 앨런이 중요한 역할을한것은 사실이나 그가 친한과여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한것은 아니라고 7일 말했다. 앨런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했다는 것이다.

全斗煥대통령의 방미초청교섭이 레이건행정부 취임이전에 진행되었기때문에 카터행정부관리들이 손을 떼수가 없었고, 앨런이 백악관으로 들어갈것이 내정되어있어 교섭을 맡을 적임자였다고 韓美관계에 정통한 이 관리는 말했다.

전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스틸웰, 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가된 홀드리지, 조지타운대학의 클라인등이 全대통령방미교섭을 거들었다고 이관리는 말했다.

동양인들은 어떤일에 관여한 인물을 중요시하는 반면, 대세의 흐름이나 조직의 짜임새(시스템)를 소홀히하는경향이 있다고 이관리는 지적했다.

(동양사람들은 사람을 조직하고 서양사람들은 일을 조직한다는 말이 있다) 그당시 발족하는 레이건 행정부는 카터행정부의 對韓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시정하는것이 급선무였고 레이건사람들의 여론을 지배하는 대세였다는것이다.

앨런의 후임으로 백악관으로 들어온 윌리엄·클라크는 국무성에서 일할때 한국뿐 아니라 일본、중공등 아시아문제에 각별한관심을 갖지않았다고 한다. 全斗煥 대통령의 방미이래 한미관계는 크게 호전되고 별문제가 없어 클라크가 한국에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없었을것이라는 얘기다。헤이그장관이 워싱턴을 떠나는경우 대리하게되는 국무부장관으로서 클라크는 세계문제를 재빨리 두루 터득했다고 이관리는 말했다.

아마도 클라크는 지난1년동안 대소관계가 바닥에 깔리는 폴란드、중동、중남미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다。클라크는 레이건지사시절때부터 측근이며 레이건이 좋아하는 팀웍과 조정에 능한 행정가로 헤이그국무장관、와인버거국방、미즈고문과 다 관계가 좋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한국에 문제가 터지면 클라크는 한국안보에 중점을 두는 헤이그、와인버거의 의견을 잘 조화하여 정책방안을 마찰없이、그래서 재빨리 레이건에 건의하게 될것이라고 이관리는 풀이했다。

이관리는 한국정부에 조언하는 입장이라면 미의회 지도자들 그중에서도 야당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지도자들에 한국이 더 많은 관심을 쏟도록 권고할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정부가 對美관계서 가장 조심해야 할것은 한국문제가 미국신문、TV에 좋지않게 크게 보도되는것이라고 이 관리는 말했다。그는 미국신문들이 한국에대한 좋은 뉴스는 거의 보도하지않는다고 말하고 88년서울올림픽 개최를 그예로 들었다。

미국사람들과 미국언론의 對한국이미지는 뭐가잘못되었을지는 모르나 역사적으로 좋지않다고 전제하고 한국에대한 나쁜뉴스가 터져나오면 잠재해있는 좋지않은 對韓이미지가 금방 확대되어 나온다고 이관리는 솔직하게 말했다.

한국을 좋게보고있는 레이건행정부도 미국신문보도나 국민여론에 영향받게 되는것은 어쩔수없는 일이라고 했다。한국이 걱정해야할 일이 앨런경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國際焦點

"아버지는어디에" 애타는 바웬사 家族들

◇폴란드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지난 12월13일의 계엄령이래 1개월이 가깝건만 그를 사랑하는 대중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도주실패설、단식투쟁설、對정부 협상설등 비공식보도가 나왔지만 확인되지않고있다。폴란드 계엄당국은 정부청사 또는 바르샤바 교외의 한호화별장에 연금돼있다고 「바웬사의 현주소」를 밝히면서 가톨릭교회 지도자및 가족들과 만나고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확인할수 없다。사진은 5남매의 자녀와함께 식탁에 앉아 남편을기다리는 바웬사의 부인 다누타여사。 【타임誌】

海外토픽

★日서감기약크기로보트캡슐 腸內세균채취분석

【東京8日=宋孝彬특파원】東京대학 공학부 후나구보(舟久保熙康)교수등 연구팀은 腸내세균을 채취·분석할수 있는 감기약만한 로보트·캡슐을 발명、암과심장병 예방과 치료에 큰효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이캡슐은 길이 19㎜、직경 8㎜의 원주형으로서 사람이 감기약처럼 먹으면 입을통해 위와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오는 사이에 외부에서 원격조정으로 캡슐의 입이 열려 위액을 0·2cc정도 필요한 곳에서마다 조금씩 채취할수 있다는 것이다.

위투시 카메라처럼 불쾌감이 없고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양을 채취할수 있다는 점과 장기관의 발병원인을분석할수 있다는데 큰장점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위와 장속에는 유해한 세균과 유익한 유산균등이 섞여있어 균형이 깨졌을때 장기관은 고장을 일으키고 암、간경화、심장병등을 일으키는데 이로보트·캡슐에 의해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밝혀지면 장기관고장에 대한근본적인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장등 肉類副産物 流通體系확립 시급

육류부산물(머리 족 내장등)에대한 유통체제의 확립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있다。6일 畜協이 조사한육류부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생산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있으며 일부도매상의 독점으로 육류부산물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畜協은 이에따라 도축장을 새로 설치할때는 일정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하고 부산물처리기준및 등급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어공부 프로그램

토론토 교육청에서는 시의 많은 학교를 통해서 조기 불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불어지도를 반나절 가르치는데 씨니어·유치원에서 부터 시작한다.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에게 영어로 말하고, 선생은 불어로 응답하는 식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영어에서 불어로 전환케 한다.

국민학교 프로그램은 씨니어·유치원으로 부터 국민학교 4학년까지 완전히 불어로 지도된다. 다음 단계의 6학년까지 주제는 영어와 불어의 절반씩 가르쳐 진다.

외부접경의 학교명단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교통편이 가장 가까운 지명된 쥬니어 학교에 준비된다.

조기 불어 프로그램의 1982~83년도 실시학교는 다음과 같다.

Allenby	SK — grade 6	Jackman	SK — grade 3
Brown	SK — grade 6	John Fisher	SK — grade 5
Dewson	SK — grade 2	Palmerston	SK — grade 2
Gledhill	SK — grade 2	Runnymede	SK — grade 2
Howard	SK — grade 6	Williamson	SK — grade 6

등록서류및 미팅에 대한 소식은 모든 쥬니어 학교들에 문의할 수있다. 보다 더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은

Board's Modern Languages Department 598－4931 교환 606

토론토 교육청

이대환 不動產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成人童話」붐 일으킨 先頭주자

우리時代의 伝說 베스트셀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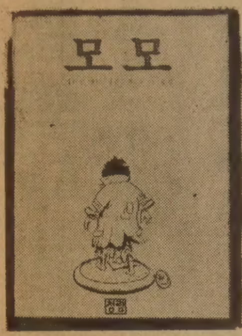
「모모」

엔데作 車京雅譯

현대인들은 童心을 잃어가고 있다지만 童話마저 싫어하는것은 아니다.

1977년의 우리나라독서가에서는 「成人童話」라는 낯선 문학장르가 선풍을 일으켰다. 문체는 동화같으나 내포한 의미가 깊어 어른들이 보기에 적합하다 해서지어낸 이름인 성인동화는 각박한 일상속에 찌든 현대인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성인동화붐을일으킨 선두주자가 西獨작가 미카엘·엔데원작으로 車京雅씨(西江大강사)가 번역한 모모였다. 원작이 아직 西獨에서 동화대상을 받고있을때 이번역본은 우리나라의 성인사회에 바람을 일으켰다.



◇국내에서 번역된 「모모」 초판. 화가의 아들인작가 엔데는 직접 표지화를 그렸는데 靑藍은 이중 「모모」와 시계그림만으로 여백이있는 표지화를 재구성했다.

「時間도둑」에 맞선 거지소녀 現代의 각박한 人情을 고발

최근들어 원작이 그곳 성인사회의 베스트셀러로 올라섰으니 이미 「성인동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붙인 한국출판계가 여러해를 앞선셈이다.

이 작품은 「모모」라는 착한 소녀를 통해 현대문명의 각박한 인정을 고발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절규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어느도시를 무대로한 이동화에서 모모라는 거지소녀는 마을사람들의 따스한 보호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사람들은 모모를 돌봐줄 뿐 아니라 그와 놀아주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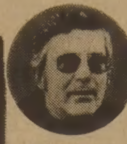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이 도시에 인간의 시간을 빼앗는 「회색도당」들이 출현하여 교묘한 사기술법으로 시간을 빼앗는다. 그 바람에 모모를 사랑해주던 마을사람들이 딴판이 된다. 지금까지 가난하면서도 여유있게 살던 이들은 돈을 버는데 여념이 없어진다.

시간도둑들의 음모가 갈수록 성공을 거두어 자칫하면 세계의 종말이 오려는 순간 모모는 이들이 빼앗아 놓은 시간들을 풀어줌으로써 세상은 다시 전처럼 평온을 되찾는다.

따라서 이것은 외관상 완전한 동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피노키오」나 「피터팬」과 다른것은 고래나 해적대신 「시간도둑」과 싸우는 것뿐이다.

車京雅씨가 맨처음 이 책을 읽게된것도 「동화」로서였다. 서울文理大독문과를 졸업하고 弘益大에서 독문학을 강의하던 車씨는 1976년

한국서 人氣누린뒤 본고장 西獨서 뒤늦게 선풍



◇미카엘·엔데

DAAD장학금으로 본대학에 유학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그는 어린애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의 소재도 찾을겸해서 서점의 동화부에 들렀다가 이 책을 사게됐다.

이책을 번역하겠다는 생각은 전혀없었다. 그러나 책을 읽어갈수록 재미를느끼자 불현듯 그와 친한 어느 출판인이 생각났다. 이출판인은 車씨가 西獨에 갈때 『재미있는 책이있거든 번역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막상 車씨가 이 책을 번역하여 출판을부탁하자 그는 출판을 망설였다. 성인물만 취급하던 그가 동화를 펴낼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의친구인 權根述씨(靑藍문화사대표)에게 부탁하자 그는원고를받아주긴했지만그것은「친구의 의리」로인한 울며겨자먹기였다. 원고를받아놓고도 靑藍은 6개월동안이나 출판을미루다가 77년9월15일 국판 3백페이지에 정가 1천3백원으로 내놨다.

책이 나온후 수개월뒤 귀국한 車씨는 예상외로 높은 「모모」의 인기에 깜짝놀랐다. 「만화 모모」가 나오는가 하면 「모모슬픈」과 「모모셔츠」가 나왔고 얼마후山河극단은 연극 「모모」를 공연했다.

TV를 틀면 「모모」라는 가요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노래는 미카엘·엔데의 「모모」와 에밀·아자르의「자기앞의 生」의 주인공 「모모」를 결합한것이다.

車씨에게 「모모」라는 별명이 붙었다. 엔데는 어느새 인기작가가 돼있었다.

그때까지 西獨에서 엔데의 인기는 보잘것 없었다. 車씨는 귀국하기전 엔데를 만나보라는 출판사의요청으로 같은 대학의 독일인친구들에게 엔데를 아느냐고 물은적이있었다. 친구들은 「모모」에 관해서는 모른채, 「짐·크노프와 기관사 루카스」의 저자로 그를 기억했다.

1929년 西獨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태생인 엔데는 원래 연극배우로 활약하다 1960년 동화「짐·크노프」로 문단에 데뷔했다. 이 작품으로 이듬해 독일청소년문고상을 받기도했지만 14년뒤인 1974년 「모모」를 내놓기까지 전혀 작품을 내놓지않았다.

車씨는 전부터 잘알고있던 여류작가 루이제·린저를통해 엔데가 당시 로마교외의 알바노에 머물고있음을 알고 린저의 소개로 그의 집을 찾아가 사흘이나 머물렀다.

엔데의 집을 찾아간 車씨는 엔데의 사생활이 「모모」의 주제와 너무나 흡사한데 놀랐다.

「모모」에는「카시오페아」라는 거북이 등장하는데 엔데는 집에 금붕어와 거북을 키우면서 일일이 이름을 붙여놓고있었다. 가구들도 모두가 오래된 것들로 아예 시대의 흐름을 초탈한 생활이었다.

그가 조국을떠나 이탈리아에 사는것도 『오늘의 독일에서는 약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있어 숨이 막히기때문…』이라는 모모식의 발상에서였다.

여러가지 장르중에 동화를 택한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西獨의경우 성인소설을 내놓으면 엄청난 매스컴의 관심과 비평의 홍수에 휩쓸리는데 이런것은 그의체질상 견디기어려운것들이었다.

행인지 불행인지 세상은 그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 「모모」를내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그는「아동 문학가」라는 도피처에 숨을수있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이를 성인물로 보고 매스컴과 평론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있다.

그의 작품이 수십개국어로 번역된은물론 TV와 신문등에서 수시로 그를 초청하고있다. 그럴때마다 그는 『내가 이런 유명세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당신들은 잘알고 있지않느냐?』고 항의 하고있다. 그것은 「모모」속의 「지지」라는 인물을 연상하는 정경이다. 원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의도둑들은 그를 턱없이 바쁘고 욕심많은 「유명작가」로 만든다.

「모모」는 日本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모모」라는 이름이 日本의대표적인 전설의 주인공 「모모따로」(桃太)와 같아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모모」를 일본이름으로 알고있는정도다. 東京대학의 한 철학강의에서는 「모모」를 부교재로 사용하기까지했다. 철학자들은 「모모」가 동화적인 구성이면서도 서구인의 時間哲學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번역판 「모모」는 출판된지 1년여만에 12판이 나가는 호황을 보였다. 그 인기로인해 79년봄에는 다른 출판사가 「번역표절」을 하는 소동을 빚기도했다.

「모모」의 인기가 좋자 靑藍은 「모모」보다 14년전에 나온 「짐·크노프」를 역시 車京雅씨 번역으로 내놨다.

엔데가 79년에 「끝없는 이야기」를 내놓자 車씨는 이것도 번역하여 부군이 경영하는 두레社에서 내놓았는데 모두가 꾸준한 판매실적을 보이고있다.

그바람에 車씨의 이름은 엔데의 이름과 혼동될정도였으며 한때는 그도 엔데처럼 국민학교등에서 강연해주도록 초청을 받기도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참다운 모모의 시대는 한국의 산업화가 가속되는 지금부터일것이다.

【梁平기자】

新春文藝당선 隨筆

겨울이야기

李海銀

하얀 異國땅…썰매위 다정한 父子모습에 할머니등에 업혀 눈길가던 고향 생각이

지난 겨울은 마냥 희었다. 12월 초부터 뿌리기 시작한 눈이 그해가 다 가도록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친구와 내기를 했다. 이눈이 4월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국 눈발은 2월이 되면서 약해졌지만 잔설은 4월까지 녹지를 않았다.

이곳에 첫눈이 오던 날 동쪽 포토맥강변의 작은 도시 알링턴에서도 폭설이 내렸고 그날 친구는 전화를 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방금 산책에서 돌아온 그의 따스한 입김이 수화기를 통해 내게 전해져 왔다.

『강 둑까지 걸어갔다 왔지. 정말 굉장한 눈이야. 거기는 어때? 여기처럼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

그때 내 방 유리창은 눈으로 빈틈 없이 덮여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는데 반대로 방 안은 차츰 밝아지고 있었다. 계속 눈은 쌓이고 있었고 눈내리는 소리가 사근사근 내 귀를 간지르고 있었다. 친구 목소리는 봄빛같이 다정했다. 강아지처럼 즐거워하며 강 가를 뛰어다녔을 그의 모습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얼마만큼 쌓여있나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관 문은 바람에 실려와 쌓인 눈때문에 열리지가 않았고 이후 며칠간 난 바깥 구경을 하지 못했다. 그 동안 난 내내 오린지를 먹으며 TV를 보았는데 방송국 기자들은 신이 나서 폭설 사태를 보도했다. 교통이 끊기고 마을이 고립되고 공항이 폐쇄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하는 사건들을 그들은 현장에 떠버티고 서서 침을 튀기며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같았다. 소파위에 웅크리고 앉아 TV를 보고 오린지를 먹고 책을 보곤 하다 난 3일 만에 바깥으로 나왔다. 오린지 향기에 질려 버렸던 것이다.

내방 유리창은 눈 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다. 그 위에 파란 솔가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가냘픈 가지였다. 잎새 사이로 가끔씩 눈가루가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개지 않을 것 같은 회색이었다. 비발디의 바이얼린 소리같은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드물게 오고가는 사람들은 얼굴을 밤손님같이 눈만 내밀고 있었다. 흰색의 사막같은 거리 풍경이었다. 차들이 눈에 덮여 지붕 꼭대기만 가까스로 내밀고 있었다.

양로원까지 가는 길에는 두 개의 주유소와 한 개의 골동품점, 세 개의 레스토랑, 그리고 약국, 철물점, 이발소 등이 있었다. 한낮이었지만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주인들이 서성거리며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가게앞의 눈을 치워야만 했지만 치운 눈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할지 별묘안이 없는 답답한 표정들이었다.

버스도 일반 승용차도 거리에는 드물었고 간혹 눈을 가득 싣은 트럭들이 꽁무니에서 눈바람을 날리며 지나갔다. 그런 중에도 몇몇 젊은이들은 운동복 차림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썰매차 위에 아이를 싣고 끈을 매어 끌고 가는 어느 부자(父子)의 모습은 나의 시선을 한참이나 머물게 했다. 그 애정어린 정경은 어린 내가 할머니와 같이 걷던 고향의 넓은 벌판을 떠올리게 했다. 할머니와 나는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집에 가는 길이었다. 기차를 타고도 한참을 가야 하는 길을 가난한 할머니는 걸어가야 했다. 할머니는 많은 시간을 나를 업고 걸으셨는데 그 구부러진 등 위에서 난 퍽이나 행복한 기분이었다. 할머니 어깨 너머로 멀리 오두막집이 보일라치면 할머니 걸음은 조금씩 빨라지셨다. 우리는 오두막집 처마밑에서 쉬었다. 할머니는 곰방대를 피우시다가 가끔씩 내 손을 호호 불어주었다. 난 조금도 춥지가 않았는데 말이다. 바다와 같이 넓고 햇살처럼 따스한 사랑을 내게 주시던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구부러진 등에 철없이 업혀 잠들었던 기억은 두고두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겨울이 되고 눈이오고 이렇게 한적한 풍경 속에 있으면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와 계신다.

<그림·權大雄>

호수가 가까와짐에 따라 바람이 점점 차가와졌다. 기슭에 위치한 양로원 옥상에서 내려다 본 호수 위에는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었다. 가물가물한 수평선 위에 커다란 배 한 척이 꼼짝않고 떠 있었다. 기슭 건너의 등대 벽에서 파도가 하얗게 흩어졌다. 호수의 빛깔은 하늘보다 더욱 어두운 잿빛이었다. 호수와 하늘 사이를 몇 마리의 갈매기가 꽃잎같이 아름답게 날고 있었다. 때때로 갈매기들은 나지이 울었고 그 소리는 이내 파도 속에 묻혀져 갔다.

그날 밤, 양로원에는 아무도 오지를 않았다. 오후에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 밤을 새기로 했다. 침묵 속에 잠겨가는 밤을 지켜보는 일은 내겐 항상 감동적이었다. 창 가에 앉아 뜨거운 코피를 마시며 난 눈 내리는 소리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고 아무도 없는 거리를 누군가 오는 양 내다 보았다.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수줍은 소녀같이 밤이 저만치서 사뿐사뿐 다가오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어두운 미소를 띠고 두 손을 들어 가만히 펴 보이며 밤은 그렇게 내게로 다가왔다.

아침은 눈부시게 밝았다.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길에서 나는 신문 돌리는 어린 소년과 눈 속에 묻힌 차를 끌어내려 애쓰는 두 명의 청년을 보았다. 그들의 생동하는 모습이 나를 기쁘게 했다. 그들의 모자 위에서 아침 햇살이 밝게 부서지고 있었다.

내 방 창문 앞의 솔가지는 이제 겨우 손가락 만큼의 크기만 눈 위에 드러내고 있었다. 난 그 솔가지를 집어 현관 앞에 쌓인 눈을 쓸어내렸다. 그러다 문득 난 봄이 되어 눈이 녹기 시작하면 내 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다. 창문 틈을 타고 눈 녹은 물은 처음 낙수물처럼 떨어지다가 시냇물이 되어 졸졸 흐르고 이윽고는 호수가 될는지도 몰랐다.

난 다시 내손에 든 솔가지를 쳐다 보았다. 이 겨울 부지런히 쌓인 눈을 쓸어내라고 할머니께서 살짝 떨어뜨린 선물인지도 몰랐다. 조용히 난 현관 문을 열었다. 내손에서 솔가지가 활짝 웃었다.

當選소감

눈덮인 湖水가를 종일 달리고싶은 心情

잠결에 전화벨소리를 듣긴 했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어저께밤에는 자정쯤해서 전화벨이 아마도 20번은 울렸다. 그역시 무시했다. 전화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였다. 그전날과 그전전날은 아예 전화선을 빼놓았다. 그렇게된 이유가있긴했다. 이즈음 계속해서 반갑지않은이에게서 전화가 요란하게 왔고 또 일하지 않기로 작정한 어느병원에서도 다시 나와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끈질기게 있었던 것이다. 또한가지 이유는 자동차를 팔겠다는 광고를 신문에 냈는데 이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또한귀찮았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난즉시 난 지독한 후회에 빠졌고 절대로 어느누구에게도 어느값에도 팔지않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24일)아침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두 알의 태블리트로 늦잠을 즐기던 내귀에 요란한 버저소리가 수십번 나더니 조금 있다가 활롱하는 발짝소리와 함께 누군가 광광문을 두들겼다. 당연히 나는 깜짝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참을 헤매 안경을 찾아 썼고 전화기를 들고 경찰을 부를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바깥의 손님은 점잖은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이어 난 뜻밖의 소식에 정말 알래스카의 얼음벌판에서있는듯한 얼얼함을 느꼈다. 신설이 소복이 쌓인 창가에 서서 난 아파트뒤쪽에 서있는 나비(나의 작은자동차)를본다.

<略歷> ▲본명 李淑子 ▲1953년생 ▲76년 서울간호전문교졸 ▲78년 도미 ▲현재 시카고 세인트·조셉병원근무 ▲주소 Lee,Sook Ja. 6128N. Kenmore (#20) CHICAGO, Il. 60625 U.S.A.

李海銀

隨筆 심사평

눈의結晶처럼 빛나는 훌륭한 글

◇한국 新春文藝 隨筆 부문심사를 맡은 趙敬姬씨(左)와 金烈圭씨.

응모작품 더미를 읽기시작하였을 때는 고르는 작업을 포기하고 싶었다. 대단히 죄송스런 말이지만 『도토리에서 굴밤을 어떻게 가려낸담?』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여섯 작품이 남았을 땐 또 다른 감회로 고르기를 포기하고 싶었다. 옥반지에서 구슬반지를 고르자니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다. 主도 唯一神도 아니고 絶對者도 아닌데 무슨 術數로 하나를…. 審査員들은 아직은 결정하지 못한 唯一神의 가위에 눌리면서 한참이나 心煩思하였다.

우리는 드디어 꼭 深淵의 가장 조용하고 정갈한 雪景山水 한 폭을 만나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미국땅 시카고를 배경으로 삼고있는데 다시 한번 더 찬탄하였다. 李海銀씨의 「겨울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가려졌다.

한국 散文의 또다른 可能性이 그雪景속에 펼쳐지고 있는듯도 하였다. 緻密한 抒情的 彫琢이 눈의 結晶처럼 빛나고 있었다. 훌륭한 글은 글로써 만도 훌륭하다는것을 보일수 있는 좋은 典型이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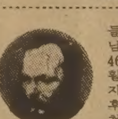
「한그루 도토리나무」(장광자)는 놀라운 筆力, 호방한 묘사력이 오히려 쇼고 용숭한 명상과 통찰력을 담고 있어 審査員들은 「하나 고르기」를 저주하고 싶었다.

끝까지 選에 올리지 못한 나머지 優秀한 作品들, 혼신의 힘으로 자신의 內面에 부딪쳐 가면서 조각하듯 작품을 쓴 玉命姬씨에게는 選·不選을 넘어 敬意를 표하고 싶다. [illegible] 金英在씨와 전성신女史께는 [illegible] 自信이 있으시기 바란다.

趙敬姬 金烈圭

文豪의 名言

도스토예프스키 <1821~1881>



러시아小說家. 醫師의 아들로 모스크바貧民病院서 남. 「가난한 사람들」(1846)의 성공으로 作家생활에듬. 처음 고골리, 발자크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후엔 獨自의 作風을 개척했다. 「카라마조프兄弟」「罪와罰」「白痴」「惡靈」등.

眞理보다는 예수와함께 있고싶다

서슴없이 이렇게 말해도 좋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眞理밖에있다. 眞理는 확실히 그리스도를 除外한다고 내게 證明한다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眞理와 같이 있고 싶지는 않다.

× × × ×

베트라세에프事件에연좌,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2분전에 극적인 특사로 목숨을 건져 시베리아로 流刑당한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가 獄中에서 폰·뷔진夫人에게보낸 편지의 한 귀절이다.

그는 처형직전의 상황을 「白痴」의 主人公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친구중 한사람은 發狂했으나 나는 분명히 의식한채 이 異常한 「경험」을 견딘것을 믿어주게.

처형대앞 기둥에 묶인채 5분간의 여유만이남겨졌을때 최초의 2분은 친구와의 告別을위해, 다음 2분은 내자신의 일들을 생각하기위해, 나머지1분은 이 세상을 마지막 바라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생각하면 좋을지, 아침햇살에 食堂지붕이 빛나고, 나는 그 빛을 무섭도록 뚫어지게 바라볼수밖에 없었다. 빛은 이제 곧 너는 나와함께 된다고 했다. 「이새로운 未知의世界와 이에대한 혐오의念」이 무서운것이었다」 이 혐오의念은 참으로 격한 분노로 변하고, 단1초라도 빨리 죽고싶어졌을때 순수전이 돌연 휘날렸다…그러나 놀랄것은없다. 나같은 경험을 한자의 눈엔, 「어느一點」에서 부터 거꾸로 젊은일이있는자의눈엔 불행한일이지만, 人生에 젠 황당무계한 일밖엔 일어나지않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그 「경험」이 證明한것은 이런것이었다. 「그는 意識이란것의 絶對性을 말하고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만 알수가있다. 그가 얼굴을 用箋紙처럼 하얗게 하고 견딘것은 意識의 무서운 透明性의 感觸이었다. 그는 「죽음」을 견딘것은 아니다. 그는 「죽음」이라고는 안썼다. 「어느一點」이라고썼다. 말하자면 그는 意識이란 바늘의 尖端에 앉는 고통을 견뎌낸 것이다. 저 최후의 2분간의 의식의 明度에 견디기 위해선 用箋紙 같은 얼굴로 沈默해 있을수 밖엔 없었다. 결국 證明된것은 「意識」이란 것의 絶對性이었다」 (小林秀雄 「白痴에 대해」Ⅱ)

도스토예프스키가 생애의 문제로 삼은것은 哲學的 形而上的 의미에서의 人間存在의 모순 그것이었으며, 善과 惡의 두개原理의 相爭하는 場으로서, 人間을 파악, 이 무한히 복잡한 世界의 情景을 묘사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뜻에서 그의 小說은 모두 形而上的이라 할수 있겠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⑤

그들이 패주하면서 발동을 쏴죽여서 한꺼번에 쓸어넣은 구덩이가 뒷산에서 발견됐다는 소문이 역병(疫病)처럼 흉흉하게 온동네에 퍼졌다.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가족이 시신이라도 확인하려고, 아니 시신만은 안돼 있음을 믿어보려고 꼿발 선 눈을 부릅뜨고 너도 나도 뒷산으로 치달는데 한씨댁이 단신 따라나선 것도 용기라기보다는 꿈속같은 몽롱한 의식때문이었다.

구덩이는 그 속에 것이 여기저기서 비죽대만큼 얇게 덮여있어서 발견하기도 쉬웠고 파헤치기도 쉬웠다. 죽은 사람들은 차곡차곡 누워있기도 하고, 곧추 서거나 물구나무 서있기도 했고 절반으로 꺾여있기도 했다. 아직도 안죽은 사람이 봉사조처럼 독칫짓 울며 사지를 퍼득대며 살아나기도했다. 여러사람이 힘을 합해 죽은 사람들을 땅위로 끌어올려 한줄로 눕혔다. 죽어서 하늘 보는 무수한 사람속에 한남석씨는 섞여 있지 않았다.

그 끔찍한 역사(役事)를 위해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희망과 절망으로 양분됐다. 같은 목적으로 차마 못할 어려운 일을 함께 한 집단사이의 이런 분열은 믿을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잔혹할이만치 선명했다. 시신의 무더기속에서 행방불명된 자기 식구를 발견한 사람은 절망의 통곡을 하고 못발견한 사람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남의 통곡을 반주 삼아 발걸음도 가볍게 그곳을 등졌다. 죽음에 비해 행방불명은 너무도 찬란한 희망이었다.

한씨댁의 몽롱한 의식은 경련치듯이 세차게 기빨을 느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손아귀속에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으면서 절망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몇번 불려 갔다가 풀려났다가 하는 사이에 한남석씨의 심신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져 있나를 한씨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희망도 절망도 할수없는 상태, 희망과 절망에게 사정없이 육신을 찢기는 것 같은 고통때문에 그녀는 거의 아이들을 돌보지않았다. 아이들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고 몸을 돌봐야 한다고 친정을 이 걱려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한씨댁에겐 아이들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수복된 서울의 가을은 순식간에 가고 동짓달 섣한풍이 미리 몰아치면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불리해졌다. 군이 작전상 후퇴를 거듭하자 서울사람들도 미리미리 피난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수원 못미쳐 농촌의 부농인 한씨댁의 친정에서 딸의 갑작스러운 불행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지 우선 그쪽으로 합쳐서 전세를 관망하자고 제안해왔다. 한씨댁은 마다할 이유도 기력도 없었다.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입히고 먹이는 일마저 힘겹고 귀찮아서 거두고 사랑하는 일은 숫제 포기 상태였다. 그런일을 떠맡기엔 친정처럼 만만한 데도 없었다.

그러나 합치고보니 대식구였다. 전세는 날로 우리에게 불리해져 서울 사는 일가붙이들이 그 집을 정거장삼아 모여서 숨을 돌리기도 하고 전세를 점치기도 했다. 여름의 경험으로 일단 한강만 건너면 누구나 숨을 돌리고 느긋해질수가 있었다.

한씨댁의 친정집에선 인심좋은 부농답게 아무리 많은 군식구가 북적대도 싫은 내색 안하고 배불리 먹이고 등뜨뜻하게 재웠다. 끼니마다 두루기상이 여기저기 놓이고 고봉으로 담은 구수한 잡곡밥과 우거지국과 짭짤한 김치 깍두기가 푸짐하게 나왔다. 누구나 배 불리 먹을수가 있었다.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발송부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CHEUNG'S 태권도센타

456-0121
KEN CHEUNG

한인회 정기 총회

공 고

한인회에서는 정기총회를 아래와 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월23일(토)오후2시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안건 : 1. 업무보고
2. 감사보고
3. 결산보고
4. 년도업무계획 예산안보고
5. 이사. 선임위원 인준
6. 회관이전문제
7. 기타 제안 진행토의

한인회회장 박인순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불타는 3號창고　불타고있는 世大製紙공장 3호제품창고。신문용지 8천톤을 모두태워 34億원의 재산피해를 냈다。【群山=聯】

倉庫3채全燒 34억원被害

世大製紙화재 強風타고 7시간 燃燒

펑 소리와함께 發火 人命피해 없어

【群山=聯】7일밤11시59분께 전북群山市助村洞2 世大제지(대표 高炳鉉·47) 3호제품창고에서 불이나 창고3채와 창고안에 쌓아둔 8천여톤의 종이제품을 모두 태워 34억원의 재산피해(경찰추산)를 내고 7시간만인 8일상오7시께 진화됐다。

불이난 이창고에서는 공원 高碩順씨(45)와 朴金生씨(27)등 2명이 완정실에서 야간작업을 하고있었으나 불이나자 뛰쳐나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처음 발견한 世大제지경비원 姜昌求씨(37)에 따르면 이날 6번초소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초소와 50m 떨어진 3호제품창고 완정실쪽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것。

발생 불은 완정실에서 차례로 인근창고에 옮겨붙어 삽시간에 창고3채를 모두 태웠으며 창고와 창고사이에있는 통로를통해 불길이 번졌다。

완정실에서 야간작업을 했던 高씨는『갑자기 형광등이 깜박거려 뒤를 돌아보니 제품더미뒤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진화 불이나자 群山소방서소속 소방차13대를 비롯, 全州·裡里에서 각각 2대씩을 지원받아 모두 17대가 출동,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인화성이 강한 종이제품에 불이 붙은데다 때마침 강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世大제지산하업체인 한국합판 한국염전 제일종고교등 관련직원 5백여명도 화재현장에 나와 창고에 이웃해있는 기계실에 불이 옮겨붙지않도록 물을 뿌렸다。

재산피해 이 불로 1천4백평규모의 2층 창고건물 1채와 7백평 단층창고 1채등 3백평 단층창고 1채, 나란히 서있던 창고 3채가 전소됐다。

이와함께 제품창고안에 쌓여있던 신문용지 4천톤, 교과서 용지 2천9백톤, 갱지 1천2백50톤등 모두 8천1백50톤의 종이 제품이 불에 타 34억여원의 엄청난 피해를 냈다。

한편 회사측은 불이 제품창고만태워 생산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는데 불에 탄 창고와 종이제품은 국제화재·제일화재보험등에 가입된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화재원인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고당시 발화지점 완정실에서 야간근무를 했던 공원 高碩順씨(45)와 朴金生씨(27)등 2명을 소환, 평소사용해온 롤방난로로 인한 실화여부를 집중추궁하고있다。

경찰은 또 이날하오 정확한 화인을 가리기위해 치안본부 화재감식반에 화인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불을 처음목격한 6번초소경비원 姜昌求씨(37)의 진술과 평소 야간근무자들이 롤방난로를 이용, 야식등을 해왔다는 점등을 토대로 난로사용부주의에의한 실화혐의가 짙은것으로 보고 高씨와 朴씨를 불러 사고당시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高씨와 朴씨가 발화당시 형광등이 깜박거리면서 30m 뒤쪽 종이뭉치에서 불길이 번졌다는 주장을 계속함에따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여부도 아울러 캐고있다。

한편 이날하오 화재현장을 둘러본 世大제지 高判南회장은『창고만 불에탔기때문에 제품생산에는 차질이없을것』이라고 말하고『평소 15일분의 물량을 서울龍山하치장에 비축해오고 있기때문에 당장 수급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아침 화재현장에는 1천여명의 世大제지직원들이 나와 타다남은 종이를 점검하는등 복구작업을 폈다。

世大제지 世大제지는 지난1943년 북선제지로발족, 고려제지로 이름을 바꿨다가 世大제지가 돼 현재 民正黨 高判南의원이 회장을 맡고있다。

1일 생산능력이 4백50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로 연간 1천여만달러의 신문용지를 동남아등지에 수출하고있다。불이난 3호 제품창고에서는 지난 80년11월23일에도 화재가발생, 4억여원어치의 제품을 태운적이 있다。

深夜응급患者 발생하면 전화119번 부르세요

3월1일 서울부터

소방서에 救急車·훈련받은要員 대기

간단한응급처치후 病院후송

심야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현행화재신고 번호인 119번으로 신고해 병원으로이송하는「119응급신고 제도」가 오는3월1일 서울지역에서부터 실시된다。

8일보사부에 의하면 소방서와 병원을 연결하는 이제도는 통금해제에따른 야간응급환자대책으로 세워진것인데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뒤 釜山、大邱등전국6개도시로 확대실시 한다는것。

이미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이제도는 각소방서에 구급차와 응급처치훈련을받은 소방요원들을 대기시켰다가 응급환자신고를 화재신고와같은 119로 접수, 요원들이 간단한 응급처치후 가까운병원에 후송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소방본부측은 이를위해 이미 7천만원의예산으로 시내 8개소방서에 1대씩 배치할 8대의 앰뷸런스를 구입하고 1개소방서마다 6명씩배치할 응급요원 50여명을 선발, 2월한달동안 적십자사에 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응급요원들은 소방요원중 軍시절 위생병이나 의무병과 출신들로 선발하며 10~15일간의 적십자위탁교육을 통해 응급처치자격을 취득시키고 긴급한 경우 산파역할등도 할수있는 의료기술까지 갖추도록 할 예정。

시소방본부는 앰뷸런스운전요원1명과 응급요원 2명등 3명이 1개조가 돼 각소방서마다 밤10시~상오8시까지 사이의 심야10시간을 2개조가 교대 야간대기근무를하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구급차는 나머지시간에도 대형교통사고나 화재현장외 응급환자수송등에 활용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태세를 갖출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57만명

올해 大入원서·銓衡料金 1백억원 달할듯

올해 대학입시에서만 약1백억원의 원서대와 전형료가 대학으로 몰려들것으로 보인다。이는 올해 대입수험생이 57만명으로추산되고이들이전후기대학에 각각 2개대학씩 복수지원 할수있는데다 원서대가 1천5백원~2천원、전형료가 4천5백원~5천원으로 수험생1인의 원서교부및 전형료가 7천5백원~1만9천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원서교부 시간연장 通禁해제로 24시간

한편 통금해제에따라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원서교부시간을 예년의 경우보다 크게 연장했다。

成均館大、慶熙大、建國大、淑明女大、檀國大、世宗大、誠信女大등은 응시자들이 하루중 아무때나 응시원서를 살수있도록 교문입구 수위실등에 원서교부처를 설치、24시간교부제를 실시하고있다。

또 延世大 高麗大 國民大등은 매일밤12시까지 원서를 교부하기로했다。

이밖에 梨花女大(밤10시까지)東國大(밤9시까지)漢陽大(밤9시까지)外國語大(하오6시까지)등도 지난해까지는 하오5시까지만 원서를 팔았으나 올해는 교부시간을 1시간에서 5시간까지 연장했다。원서교부시간을연장한데 대해 한 대학당국자는『통금해제와 발맞추어 응시자들에게도 이에 따른 편의를 주자는데 뜻이있다』고 말했다。

각 大學定員넘어 원서交付 이틀째

전기대학입학원서교부 2일째인 8일 서울大·高麗大·延世大등 시내대부분의 대학들의 원서교부현황이 입학정원을 넘어서 심한 눈치작전을 보이고있다。

서울大의 경우 1만3천여장이 팔려 2-1의 경쟁률을 보였고 高麗大5천7백여장, 延世大5천2백장, 梨花女大6천여장、成均館大6천여장、慶熙大8천여장등 모두 입학정원을 넘어섰다。

작년 大學生장학생 총 6백4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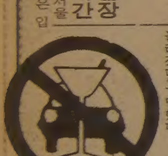
문교부는 8일 지난해 대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 총액이 모두 6백4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80학년도의 장학금지급총액 2백74억원과 비교해 1백33%가 늘어난액수이다。

문교부는 또 지난해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수는 19만3천1백31명으로 전체학생의 44%이며 이를 등록금전액수준으로 환산해볼때도 전체의 20·3%인 8만7천5백86명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급된 장학금내역을 보면▲학비감면 장학금이 5백17억원(수혜자15만6천98명)▲일반장학금이 1백24억원(수혜자3만7천2백33명)이다。

문교부는 올해부터는 대내 장학법인설치、동문회등 외부장학금의 유치확대、근로및 봉사장학금의 개발등을 통해 대학생장학금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通禁해제…營業시간延長 새紛爭

"일더하고 手當이 없다"

運輸·接客업소 연장근무 강요

택시入金늘려 영업포기 속출

통금이 해제되면서 운수업계와 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이 연장됐지만 종업원들에게 이에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등 철야영업체제에 구멍이 뚫려 노사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있다。특히 철야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택시의경우 업주들이 시간당 2~3천원씩의 입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고있는 현편。또 일부 생산업체에서도 24시간 작업을 계속하면서 종업원을 늘리지않고 2교대를하거나 수당을 주지않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37년만에풀린 통금이낳은 과도기적부산물인데 시급히 조정돼야할 사회문제가 아닐수없다。

서울九老공단등 대부분의 생산업체나 관광업소에서는 영업시간연장과 동시에 야간및 연장수당을 주거나 3교대근무제를 실시、큰 문제가 없는편인데 접객업소와 운수업체들만 신규채용을 하지않은채 현재 인력만갖고 연장근무를 강요하기때문에 분규사태를 빚는다는것。

특히 택시의 경우 연장시간만큼 시간당 2~3천원의 입금액을 인상요구 하고있어 운전사들은 승객도 별로없고 입금액을 채울수 없어 야영업을 포기하는사례가 늘어 심야교통대책에도 허점을 드러내고있다。

8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위원장 李相冗)에 의하면 운전사들의 과로와 저임은 각종질병을유발했고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돼왔는데 근로조건의개선도없이 연장근무만 하게돼 더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안게 됐다고 지적,「대책을 세워줄것을 관계기관에호소했다。

자동차노조에 의하면 지금까지 운전사의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최고 18시간(시내·외버스)이었는데 통금해제로 시내버스가 30분, 좌석버스 1시간, 택시4시간, 고속버스1시간20분, 시외버스 1시간30분이 각각 연장됐으며 고속버스운전사의 경우 최고 9백㎞까지 더 운행하게돼과로에 시달리게 된것이다。

한조사에의하면 이같은 과로때문에 운전사의 81·1%가 위장병·시력장애등 각종 질병을 앓고있으며 1인당평균 2·2종의 질병에걸려있는 실정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되고 있다。

이와같은 운수업체종사자들의 과로와 연장근무에 대해 자동차노조는 현재 격일근무제로 하루 18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하루8시간씩 1일2교대로 개선하고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이내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버스안내양의경우 인원부족으로 하루 18시간이상 근무하면서도 3~4일 계속 종사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연장근무에 따른 야식등 급식과 휴게시설을 갖추고 침실·침구등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조는 근로시간을 임금등 근로조건을 적법하게 개선할경우 각종버스에서 5만4천여명、택시3만6천여명、각종화물차5만2천여명등 모두 14만여명의 고용증대를 가져올수있고 영업용차량의 사고발생율(1만대당 6천3백29건)을 1천1백52건으로 50%대 감소할수 있다고 밝혔다。

운수업계 뿐만아니라 음식점과 다방、술집등의 종업원들도 영업시간이 2~3시간 연장됐으나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원만한 노사합의가 필요할것 같다。

◇한산한 注油所　토·일요일 영업제한 철폐이후 질서를되찾은 주유소。철폐이전에는 금요일만되면 기름을넣으려는 차량들이 몰려 혼잡을빚던 주유소가 이젠한산하기만하다。【8일하오 新村로터리 N주유소에서 權周勳기자찍음】

스님도 머리기르고 洋服입는다

佛敎 太古宗 袈裟·삭발撤廢 혁신적 조치斷行

修行僧제외 布敎僧에만

승려들도 승복을 입지않고 머리도 기를수있게 됐다。

불교 태고종(太古宗)은 지난연말열린 정기중앙종회에서 지금까지의 가사장삼과 삭발이 현실감각에 맞지않고 포교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 머리를 깎지않고 신사복을 입어도된다는 혁명적인 조치를 내렸다。

태고종이 채택한 이른바 유발승(有髮僧)은 사찰에 머무는 수행승은 안되고 사찰밖에서 포교하는 25세이상의 불교대학 또는 4년제대학졸업자이상으로 총무원 연수교육3회、종단공인교육 2년이상 받은자로 중앙사정위원회 심사에 합격해야 하도록했다。

이같은 태고종의 승려의모에대한 혁신적인변화는 인재등용의 폭을 넓히고 비신자와의 위화감을 줄일수있다는 점에서 높이평가되고있으나 불교의 전통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4촌매형 請負殺害기도 主犯 檢察에 自首

지난해 12월22일 사촌매형을 청부살해하려다 실패, 달아났던 李鍾安씨(23·서울 西大門區延禧1洞413)가 7일상오 서울지검형사3부 鄭相明검사에게 자수했다。

李씨는 지난해 12월22일 평소 재산관계로 원한이 많은 사촌매형 金寧民씨(46·서울 永登浦區城山洞24의18)를 살해하기위해 고향선배인 金赫出씨(35)등 5명에게 착수금 1백50만원을 건네주며『뺑소니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여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사전에 발각돼 金씨등이 경찰에 검거되자 달아났었다。

"法人稅 잘봐준다" 세무원이 受賂

서울지검 특수1부 安大熙검사는 8일 법인세 실사때 잘 봐주겠다면서 회사대표로부터 2백50만원의 뇌물을받은 南山세무서 법인세2과세무주사 朴鉉哲씨(39)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朴씨는 지난80년10월 중원종합건업대표 김호정씨가『79년도 법인세 실사때 잘 봐달라』면서 보낸 1백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11일 1백만원등 모두 2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不渡手票 4억남발 30代會社代表 구속

【慶州=聯】경북慶州경찰서는 8일 慶州불성기업대표 孫峻鎬씨(31·慶州市仁旺洞548의11)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회사공금 빼내 女經理員 입건

【濟州=聯】濟州경찰서는 8일 회사공금을 빼내 친척의 약속어음을 교환해준 大盛해운 경리사원 金炯志양(22·濟州市禾北洞4306)을 업무상 배임혐의로、金양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6백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돌려주지않은 沈상희여인(50·濟州市一徒1洞1435)을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회 現代文學賞 수상자결정

월간문예지「現代文學」사가 제정한 제27회現代文學賞 수상자가 결정됐다。부문별 수상자와 수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시=吳圭原씨(시집「이 땅에 씌어지는 抒情詩」)▲소설=趙廷來씨(중편「流刑의땅」)▲평론=金治洙씨(「日常언어와 文學언어」)▲희곡=洪承疇씨(희곡집「목마른太陽」)수상식은 2월초。현대문학상은 문학 각분야에서 15년정도 활동해온 중견문인들을 대상으로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趙廷來

◇吳圭原

◇洪承疇

◇金治洙

필로

수입이 벽에 부딪쳤던 화제외화「잃어버린 聖櫃의 추적자들」이 우여곡절끝에 국내에서 빛을 보게됐다。곡절을 겪었던 W·D사의 양보에 따라 大映영화사가 38만달러에 수입、2월중순께 개봉할 예정이다。수입가 38만달러는 국내외화수입 최고한도액이다。

하르빈한약상사

새해교민께특별봉사

- 20년간 한의사경력(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하르빈한의대학 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본토의 한약사용

서 춘 봉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536—6854(B)
743—0752(R)

◇成大서 실시한 입학체능검사를 받고있는 체육특기자。

[illegible] 강[illegible]

成大서 體育특기자 體能검사결과

개인 能力의 科學的 측정

7종목志願生 31명대상으로

成均館大가 82학년도 체육특기자 가운데 축구、야구、농구、핸드볼、테니스、태권도、유도등 7개종목 31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학 체능검사를 실시한결과 핸드볼 선수들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成大는 종래의 실적위주、전문기술위주의 선수선발 방법을 지양하고、체격및 체능검사를 과학적으로 실시했다。체격검사는 신장、체중、흉위등 운동 발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특정했고、체능검사는 유연성、순발력、민첩성、지구력、근력등 체력 요인을 측정했다。

우선 모든 운동의 기초라 할수있는 1백m 달리기서는 농구선수들(4명대상)이 평균 12초68로 가장 빨랐다。그리고 민첩성을 요하는 핸드볼(3명대상)은 평균 12초98을 기록했으며 태권도(2명대상)가 13초25、축구(3명대상)가 13초40、유도(2명대상)가 13초45、야구(7명 대상)가 13초86、테니스(3명 대상)가 14초로 가장 느렸다。

그리고 사이드·스텝은 핸드볼이 1분에 72회로 가장 우수했고、농구가 67·5회、축구가 65·6회、테니스가 65회、유도가 63·5회、태권도가 61·5회、야구가 56·7회로 가장둔한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리 넓이뛰기는 축구가 2 4 1cm33으로 가장멀리 뛰었고 핸드볼이 2 3 2cm、유도와 테니스가 똑같이 2 2 9cm、야구가 2 30cm71、태권도가 2 2 7cm、농구가 2 2 2cm로 가장 저조했다。

제자리서 수직으로 높이뛰기는 축구가 65cm33으로 가장 높이 뛰었다。그리고 유도가 64cm、농구가 61cm75、태권도가 60cm50、야구가 58cm71、핸드볼이 58cm33、테니스가 57cm67로 나타났다。

체전굴은 태권도가 20cm로 가장 뛰어났고 농구가 17cm75、핸드볼이 16cm67、야구 16cm、유도 14cm50、축구 14cm33、테니스 12cm67로 측정되었다。체후굴은 태권도가 59cm70、핸드볼이 57cm57、축구 53cm85、테니스 55cm30、야구 53cm33、농구 49cm63、유도 48cm60으로 나타났다。

시트·업(제자리서 앉았다 일어났다하는것)은 태권도가 1분에 2백20회로 가장 많았고 테니스 2백10회、축구 2백6회、유도 1백95회、농구 1백92·5회、핸드볼 1백92회、야구가 1백19회로 가장낮다。

스포츠 話題

악력은 축구가 53·33kg、핸드볼이 53kg、테니스 52·33kg、유도 51·50kg、야구 51·14kg、농구 48·25kg、태권도 45·50kg이다。배근력은 체급경기인 유도가 165kg으로 가장 높았고 핸드볼 151kg、야구 140kg、농구 138·75kg、테니스 138·33kg、태권도 135kg、축구 131kg였다。

신장에서는 농구가 181·86cm로 단연 컸고 핸드볼이 178·5cm、유도 177·75cm、축구 177·17cm、야구 176·68cm、태권도 174·5cm、테니스가 171·33cm였다。

이상 테스트결과 평균치에서 핸드볼선수들이 가장 좋은 체격과 체력조건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나타났고 야구、축구、농구등 구기종목은 비슷비슷한것으로 측정되었다。

成大는 이와같은 테스트를 통해 선수자신도 모르는 신체적인 결함과 질병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어 매년 체육특기자 입학시험은 체격과 체능요소를 고루 테스트하기로 했다。【炳】

한국卓球「中共壁」에 또 완패

英오픈 남녀團體戰서 3위

【크롤리(英國)7日聯=聯】제54회 英國오픈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韓國남녀대표팀은 7일 벌어진 대회첫날 단체전 준결승기에서 모두 中共팀에 3-0(남자)、3-1(여자)로 패했다。

中共은 남·녀 A·B팀이 결승에서 서로맞붙게돼 세계최강자로서의 위치를 다시확인했다。

이날하오(현지시간) 英國크롤리의 레저센터에서 개막된 첫날 남자단체전에서 한국남자A팀은 1、2회전에 西獨과 英國을각3-0으로 물리치고 준준결승전에서도 체코에 3-0으로 완승을 거두었으나 준결승에서 中共A팀에 3-0으로 패해 아깝게 물러섰다。

남자B팀은 1회전에서 中共B팀에 3-0으로져 초반에 탈락했다。부전승으로 2회전에 오른 여자B팀은 西獨을 3-0으로、준준결승에서 체코를 3-1로 꺾었으나 준결승에서 中共A팀에 3-1로 패했다。

여자A팀은 2회전에서 英國B팀을 3-0으로 이겼으나 준준결승전에서 中共B팀에 3-2로 아깝게 패해 탈락했다。

남녀11명이 출전한 개인단식에서는 尹吉重、盧潤寬、金琦澤、金浣등 남자4명이 모두2회전에、白良美、梁英子、朴末粉、黃男淑、安海淑、金貞美등 6명이 2회전에진출했다。

辛庚淑은 1회전서 소련의 강호 안토니안에게 접전끝에 3-2로 석패탈락했다。

李壽子는 허리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다。

◇단체전 전적

▲남자1회전
한국A 3-0 西獨
中共B 3-0 한국B
▲동2회전
한국A 3-0 美國
▲동준준결승
한국A 3-0 체코
▲동준결승
中共A 3-0 한국A
中共B 3-0 프랑스
▲여자2회전
한국A 3-0 英國B
한국B 3-0 西獨
▲동준준결승
中共B 3-2 한국A
한국B 3-1 체코
▲동준결승
中共A 3-1 한국B
中共B 3-1 유고

許載、龍山高 승리공헌

남녀 高校농구 技倆달린 三一實高 대파

水原女高 마지막 大追擊 벌려

成德女商에 劇的 역전승 거둬

◇슛찬스 잃어 龍山의 李珉珩(中)이 점프슛하려다 견제하던 三一實의 車記成에게 차징당해 슛찬스를 잃고있다。

82년도 남녀고교 신춘 초청농구대회 최종일경기가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려、龍山高와 水原女高가 각각 승리를 거두었다。여고부 水原女高와 成德女商의 대전서는 水原이 전반전서는 뒤지다 후반들어 맹렬한 추격전을 벌여 60-56으로 역전승했다。남고부 경기서는 龍山高가 許載의 재치있는 게임운영과 李珉珩、崔光根의 슛과 속공으로、개인기가 달리는데다 슛마저 부진한 水原三一實高를 89-55로 대파했다。

龍山高는 후반 10여분동안 금년 졸업을 앞두고 입학예정인 선수들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水原과 成德의 대전은 趙文珠 尹景洙가 팀의 중심을 이룬 成德이 文敬子가 고군분투하는 水原에 전반초 호각세를 보이더니 水原의 페이스로 점차 기울어졌다。

成德은 단신가드 徐仁淑과 趙泰鏡의 외곽슛이 장신선수들을 뒷받침해주었다。水原은 鄭美景이 文敬子와 콤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데다 姜順德 朴順英의 산발적인중거리슛으로 고전하다 후반 들어역전、60-56으로 승리했다。

◇최종일전적

▲남고부
용산고 89(36-31 53-24)55 수원삼일

▲여고부
수원여고 60(28-29 32-27)56 성덕여상

中共女子 뮌헨完破

西獨순회 친선배구

【뮌헨(西獨)聯合=聯】中共대표여자배구팀은 7일 西獨배구최강팀인 뮌헨팀을 세트스코어 3-0(15-4 15-11 15-9)으로 제압했다。

中共대표팀은 현재 西獨을순회하면서 친선경기를 벌이고있다。

83세계J排球 서울開催추진

排協、文敎部에 承認요청

대한배구협회는 오는83년에 있을 제3회세계남녀주니어배구선수대회를 서울서 개최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5억여원의 예산안과함께 대회개최승인을 문교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배구협회고위관계자는 국제배구연맹이 韓國이 지난해의 제2회선수권서 여자가우승(10월 멕시코)하고 남자는 3위에 입상하는등 좋은 성적을 거둔 세계강호이므로 오는83년의 제3회선수권을 개최토록 종용함에 따라 유치 결정을 했다고 그경위를 밝혔다。

배구사상 세계선수권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협회는 당초 재정부담때문에 남녀선수권 가운데 하나만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86년의 제10회 아시안게임과 88년 제24회올림픽에 대비、두대회를 동시에 치르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을 내려 추진키로했다는것。

男子排球대표 歸國

네덜란드의 디나모국제배구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韓國남자배구대표팀이 朴鎭觀단장의 인솔로 7일하오 귀국했다。

韓國남자대표팀은 오는10월과 11월에 있을 제9회 아시안게임및 세계선수권에 대비、네덜란드의 디나모국제대회에 출전、우승을 차지하는등 벨기에、西獨서 약20일동안 전지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부족 訓鍊費 5억원 支援"

李文敎 스포츠科硏 건물新築도 약속

李奎浩문교부장관은 8일 하오 泰陵선수촌을 방문、선수훈련의 과학화를 위해 2백평규모의 스포츠과학연구소 건물을 신축、스포츠과학연구의 터전을 마련토록하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대표선수훈련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 지원、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李奎浩장관은 스포츠과학화를 위한 기자재수입을 위해 연구소가 요구한 공공차관신청을 승인하는한편 연구소의 소요경비도 충분히 지원토록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대한체육회가 세운 아시안·게임대비 2백60억원의 강화훈련비중 부족한 일분 경비 5억원의 훈련비를 追更예산、또는 경제단체 지원금이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기금으로 확보、훈련계획에 차질이없도록 할것이라고 밝히고 선수들의 분투를 당부했다。

3百89명이 스포츠傷害보험 혜택

최고 朴魯俊 4百61萬원

跆拳道·레슬링·排球부문 많이다쳐

체육진흥재단이 국가대표를 비롯한 각종목선수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실시한 스포츠상해보험 가입자 3천81명가운데 12·63%인 3백89명이 입원비및 치료비를 전액보상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체육진흥재단이 지난해 3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실시한 국가대표및 스포츠단체와 개인선수의 수혜내용에따르면、A급4 B급7 C급17등 모두 28종목3천81명이 가입하여 1인당 평균 7천여원씩 2천1백77만3천98원의 보험금을 넣었으며 이 가운데 12·63%에 해당하는 3백89명이 부상을입고 입원또는 치료목적으로 보험금 2천3백32만5천원을 지급받아 가입액보다 7·1%가초과되는 혜택을받은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해보험은 종목별 부상및 사고빈도에따라 A·B·C급으로 나눠졌는데 이들 28개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부상을 입은 종목은 태권도로 60명의 가입자 가운데 28·33%인 17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의 혜택을 받았으며 다음이 레슬링·배구로 각각 25·71%가 다쳤다。

럭비풋볼 24·32%、축구 23·44%、역도 13·63%、체조 12·94%、야구11·85%、탁구 10·83%、농구 9·9%、복싱 9·09%순이며 나머지는 6%~4%까지로 나타났다。

미식축구·스키·핸드볼·사격등 4종목은 한명도 부상자가 없었다。

3백89명의 부상선수가운데 승마1 야구1 유도1 축구2명등 5명이입원하여 평균 4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 1인당 5만5천2백73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인별로보면 야구의 朴魯俊(선린상고)이 64일동안 입원、4백61만원의보험금을 받아 가장많은 혜택을 받았다。【聯】

◇메달 향한 刻苦 금년도 아시안게임과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해 메달의 집념을 불태우고있는 선수들。지난5일 시작된 泰陵선수촌 강화훈련서 육상선수들이 기초체력을 다지는 서키트 트레이닝에 여념이없다。

야구入場料 千5百~3千원

野球協會인상 프로經歷者 아마서排除

대한야구협회는 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내 프로야구의 등장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자격의 구분을 위해 협회규약 18조(임원)에『프로야구단체에 관련됐던 사람은 야구협회의 선임임원및 위촉임원이 될수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으며、선수등록규정 9조에는『프로구단에 관련됐던 감독·코치·선수는 아마구단에 등록할수없다』라는 규정을 새로 삽입키로 했다。이규정에따라 프로야구임원、코칭·스태프、선수로 활약했던 사람은 아마추어야구에서 일할수 없게된다。

한편 야구협회는 82년시즌 야구장 일반석입장료를 특석 종전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일반석 1천원에서 1천5백원、단체1천원(종전 7백원)、실업대회 주심수당을 1만8천원(종전 1만2천원)으로 책정했다。

킹스컵蹴球서 南北對決예상

泰國축구협회는 王朝건립 2백주년기념 제15회 킹스컵 축구대회를 오는 5월1일부터 20일까지 방콕에서 개최키로 일정을 확정、지난해에 이어 南北韓에 동시에 초청장을 보낸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방콕주재 韓國대사관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南北對決에 대비、강력한 대표팀을 파견해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

北韓은 지난해11월 처음으로 킹스컵대회에 출전、준우승을 차지한바 있으며 韓國의 忠義팀을 예선에서 2-0으로 꺾은바 있다。

泰國축구협회는 킹스컵대회를 매년 11월이나 12월에 개최해왔으나 금년에는 현王朝건립 2백주년 경축기념행사로 시기를 앞당긴것이다。泰國축구협회는 금년 대회에 南北韓을 비롯한 中共 西獨 濠洲등 10여개국을 초청한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韓國은 南北對決에 대비、국가대표 花郎팀을 파견키로 이미 방침을 세우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女子 핸드볼代表 22명 선발

대한핸드볼협회는 오는 12월 헝가리에서개최되는 제8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5월중 서울개최예정)에 출전할 대표선수들은 李峰一감독 지도로 13일부터 [illegible]學生체육관에서 강화훈련에 들어간다。

◇선수단명단

▲감독=李峰一(협회이사) ▲코치=金永年(仁川市廳) ▲선수=丁順福(光州市廳) 全美玉(忠州工大) 姜春淑(全州市廳) 朴美子(光州市廳) 張泉姝·尹英淑·張玉粉·金玉花·金正富(仁川市廳) 柳京美·朴完淑(忠州工大) 宋南庸·韓福男·金先玉·金順淑·李仁淑(遞擊公社) 金昌順(全州市廳) 金英姬(全南信高) 李鍾禮·尹秉順(二信女商) 成京花·金俊美(貞信女商)

張英信회장도 誠品

한국9인제 배구연맹의 張英信회장(애경유지대표)은 8일 泰陵선수촌을방문、강화훈련중인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일용 세제인 크린업 10박스、트리오 5박스、포인트비누 8박스를 전달했다。

打字機30대 崔元碩 卓協회장 기증

東亞그룹 崔元碩회장(대한탁구협회회장)은 8일 88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東亞그룹계열회사 東亞精工제품인 타자기30대(한글·영문 각각 15대씩)를 기증했다。

올해行事日程 IOC서 발표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제85차 IOC총회(5월27~29일 로마)를 비롯한 금년도 공식행사일정을 확정、KOC(대한올림픽위원회)에 알려왔다。

IOC의료위원회는 오는 30일 로스앤젤레스의료시설을 시찰하며 ▲의료위원회및 언론위원회(31일~2월1일) ▲집행위원회(2월2일) ▲집행위원회와 ISF(국제경기연맹) 연석회의(2월3일) ▲집행위원회·ISF및 LA올림픽조직위원회 연석회의(2월4일) ▲집행위원회(2월5일) 등이 84년올림픽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또 IOC는 오는5월27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 제85차 위원총회를 개최하며 이에앞서 23·24양일간은 각분과위원회 그리고 25·26양일간은 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5차 IOC총회는 한국 태권도의 88년도 서울올림픽종목 채택등 한국과 관련된 중요의제를 다룬다。

축구 最優秀선수에 趙廣來

體育기자단 베스트11 선정

축구대표팀 HB인 趙廣來(大宇)가 81년도 축구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축구담당기자들에의해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趙는 외국프로팀들의 스카우트교섭을 뿌리치고 대표팀의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왔으며 쿠웨이트 월드컵예선등 각종국제대회서 활약했다。

한편 崔淳鎬(浦鐵)는 베스트11에서 빠졌다。

이들 베스트11은 오는 19일「축구인의 밤」에서 표창을 받는다。

◇趙廣來선수

◇81년베스트11

▲GK=鄭聖敎(연세대) ▲FB=朴成華(할렐루야) 權五孫(서울시청) 張外龍(연세대) 朴景勳(한양대) ▲HB=趙廣來(대우) 李康助·李泰昊(이상 고려대) ▲FW=黃石根(고려대) 丁海遠(연세대) 邊炳柱(연세대)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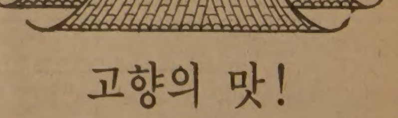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新春文藝당선 童話

하늘낚시

——朴 美 淑

유리, 보리, 헤리는 선이네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이네 개집 안엔 마른 늦가을 바람만이 귀를 세우고 모여 있을 뿐 입니다. 아직 헤리의 따스한 털 내음이 몇 모금 남아있는 듯도 합니다. 삼각형의 마당 한 귀퉁이에 노오랗게 서 있는 은행나무 잎도 이젠 몇 개 남지 않았읍니다. 툇마루의 유리문이 마루에 달려있고, 마루바닥은 니스칠을 입어서 고운 윤기가 흐르고 있었읍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던 방안에서 달래는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선이야, 강아지는 또 사면 되잖니? 어서 일어나 밥 먹고 유치원 가야지. 착하다, 우리 선이』

그래도 선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선이야, 내 이따가 헤리보담 몇 배 더 이쁜 강아지 사올께. 헤리는 털도 누렇고 한 눈이 먼 애꾸인데다 머리도 미련한 똥개였지만 이번엔 선이네 것처럼 털이 눈처럼 희고 눈도 선이 맘씨처럼 최고루 맑은 스피츠로 사올께. 알았지?』

『……』

『선이야. 그럼 엄마 화낸다』

이불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엄마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부스스 일어납니다. 화장대에 놓인 지갑을 들고 방을 나옵니다. 시장바구니를 찾는 걸로 보아 시장에 가려는가 봅니다.

『선이야, 내 곧 갔다올께. 이쁜 스피츠 사올께 집에 꼭 있어야 해』

방에서 잘 들리도록 손을 소라고둥처럼 오므리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싫어, 싫어』

와르르 방문이 시끄럽게 열리면서 양쪽 머리를 조그맣게 묶은 선이가 분홍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옵니다.

『스피츠 싫어. 헤리 갖다달란 말야. 헤리 내놔. 엄마 미워. 엄마가 헤리 팔았지, 물어 달래니까 돈 받고 반장 아저씨한테 팔았지? 다 알아. 안단 말야. 어제 뒷동산에서 태우는 거 석이가 봤대』

엄마는 선이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선이 등을 두어번 토닥여주곤 대문을 나갑니다. 선이는 한참 어깨를 들썩이며 울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하늘이 참 파랗습니다. 찔끔 새처럼 눈물이 나올만큼 온통 쪽빛입니다. 낮달도 떠 있읍니다. 신부 눈썹처럼 곱게 그려져 있읍니다. 찬바람에 흔들리거나 지워지지 않고 저렇게 얌전히 떠 있는게 신기하게만 보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노오란 은행잎이 또르르 선이가 걸터앉은 마루밑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선이는 가을이 묻은 은행잎을 보자 문득 헤리의 털빛이 생각납니다.

『오로로로로…』

빈 집을 향해서 혀를 굴려 소리내 보지만 달려와서 핥아주던 헤리의 모습은 집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가 죽었을 때도 엄만 팔아버렸어. 보리는 며칠 키우다가 꼬리 끝이 희다고 팔아버리고…꼬리 끝이 희면 재수가 없다고 고모가 말하는 바람에 그랬었어. 간밤 내 꿈엔 내 머리가 희어졌는데…그래, 엄만 내 머리가 희어져서 재수없다고 그러믄 나도 고아원에 줘 버릴거야. 길거리에 내다버릴지도 몰라. 내가 아파 죽으믄 묻어주지도 않고 팔아버릴 거야. 무서워. ―

선이는 쫓기듯이 옷을 갈아입고 원아가방에 그림책이랑 불란서인형, 초롱빛 저금통 등을 부산하게 담아 챙기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나오려다 화장대 위의 사진틀을 들여다봅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선이가 한껏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얼굴에 담고 있읍니다. 선이의 뺨이 가볍게 움직이며 사진대로 따라 웃어봅니다. 문득 선이는 중요한 걸 잊은듯이 눈을 토끼눈처럼 크게 하고 서랍을 뒤집니다.

―그게 어딨더라.

잠시후 선이가 서랍 밑바닥에서 찾아낸 것은 헤리의 사진입니다. 두 귀가 가볍게 내려앉아 있고 코가 유난히 길고 털이 황토색인게 번부리 길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종입니다. 더구나 한쪽 눈이 상한 끔찍한 얼굴입니다. 눈꺼풀이 반쯤 덮여져서 그 속엔 흉하게 여러겹의 딱지가 내려앉아 있읍니다. 가슴에 사진을 꼭 품어 보곤 원아가방의 작은 지갑 속에 소중히 넣어둡니다.

선이는 집을 나왔읍니다. 도중에 골목에서 석이를 만났읍니다. 석이가 구슬을 두 주먹 가득 쥐고 말합니다.

『선이야, 너 어디 가니?』

『…으응』

눈물 자국이 선이의 눈언저리에서 여직 지워지지 않았읍니다.

『나두 따라가믄 안될까?』

『……』

『어디 가는데, 응?』

『멀리 갈거야. 최고루 멀리. 헤리도 데리고 간다?』

『애개개, 헤린 죽었잖아. 바보야』

『안 죽었어. 이 속에 있어』

집게 손가락으로 교회가 그려진 가방을 가리키며 선이가 야무지게 대답합니다.

『바보야. 까짓 병신개를 갖고 뭘 울고 그러니?』

『뭐라구?』

선이가 꾹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자 석이는 쥐었던 구슬을 땅바닥 움푹 패인곳에 놓아두고 선이를 달랩니다.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선이는 좋은 생각이 난듯 말합니다.

『석아, 있잖아. 너 나랑 갈래?』

『어딘데?』

『아주 좋은 곳이야. 너 내 그림책에서 본 곳 생각나니? 도토리랑 다람쥐랑 많이 있는 숲 말야. 버섯도 이쁘게 피고 그림책에서 영희랑 철수가 놀던, 산 곳 말야. 거기 찾아서 갈거야』

『그래? 좋아. 내 옷 두껍게 입구 올게. 엄마한테 말하고 올께』

『안돼. 엄마들은 나뻐. 우리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 돈만 세고 만화도 못 보게 하고…우리가 한다는 건 다 못하게 해』

『그래두…』

『그러니깐 옷만 입구 와. 심심하니깐 너네 그림책두 갖고 와, 응?』

선이와 석이는 누가 볼세라 골목길을 뺑뺑 돌아서 유치원 가는 길을 훨씬 지났읍니다.

『우리 버스 타고 쌀이랑 콩이랑 나는 데 가자』

『그래. 내가 안다. 우리 할머니 버스 타는데서 끝까지 가믄 돼. 그 끝에서 옥수수도 따 왔거든』

선이가 자신있게 두 눈에 파란 희망빛깔을 띠고 얘기 했읍니다. 그리고는 길가 돌멩이를 주워서 모가 난 뾰족한 부분으로 저금통을 깨뜨렸읍니다. 좌르르 동전 가운데 가끔씩 여러겹으로 접어진 지폐도 끼어서 쏟아졌읍니다. 원아가방속의 속지퍼를 열고 나누어 돈을 넣었읍니다. 저만큼 파출소가 보였읍니다. 둘이는 가슴이 두근 거리기 시작했읍니다.

『선이야, 혹시 너네 엄마가 파출소에 말한 게 아닐까?』

『몰라. 우리 둘이 도망 쳤다고 잡아달랬을지…』

『어쩌지, 우린 혼날텐데. 엄마한테 알밤도 얻어 나가믄 혼났는데』

선이와 석이는 구불구불한 골목길로만 걸었읍니다. 벌써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오후가 깊었읍니다. 꼬르륵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읍니다. 건너편에서 버스 정류장이 보였읍니다. 마침 버스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와 손님을 내리고 또 태우고 있었읍니다. 급히 길을 건너다 석이는 택시와 부딪칠 뻔 했읍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읍니다. 안내양 언니가 다가와서 물었읍니다.

『너네들 어디 가니?』

흠칫 놀라며 선이가 대답합니다.

『음…저기 이 버스 젤 끝까지요』

『그 먼데까지 너네 둘이서?』

『네에 심부름 가요』

『저기 누가 나와서 기다리니?』

선이는 대답 대신에 먼데는 차비가 비쌀 게라고 생각하면서 오백원짜리 지폐를 건네 줍니다. 언니는 웃으면서 도로 밀어버립니다. 그때 다른 정류장에 다닿기 때문에 바쁘게 언니가 버스문쪽으로 뛰어갑니다.

한참을 달렸읍니다. 선이는 플래스틱 장난감 시계를 들여다 보면서 토옥토옥 밥을 줍니다.

―너무 배 고프지? 나도 배가 많이 고프다. 우리 헤리는 이제 누가 밥을 줄까.

석이 옆에서 선이는 잠이 들었읍니다. 선이는 아이들과 소꿉놀이를 하고 있읍니다. 도토리 무겸을 엮어서 솥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버섯을 뜯어다 나물을 만듭니다. 온통 단풍색 궁전처럼 가을산이 옹기종기 서있고 작은 개울은 맑게 흐릅니다. 가끔씩 물고기도 투명하게 튀겨오릅니다. 불란서 인형이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있다가 내려와서 풀밭에서 춤을 춥니다. 어디선지 헤리가 뛰어 나왔읍니다. 헤리는 선이가 무쳐놓은 버섯나물을 맛있게 말끔히 먹어치우고는 온 풀판을 뛰어다닙니다. 빨갛 노란 단풍잎들을 주워모아다가 발과 이불을 만들고 큰 잎사귀로는 우산도 만들었읍니다. 헤리의 아픈 눈에다 단풍잎을 찧어서 나온 아름다운 즙을 발랐더니 그늘이 부드럽게 생긴 쌍꺼풀이 그림처럼 속눈썹 위로 그려지더니 눈을 살포시 뜨게 되었읍니다. 좋아서 펄펄 뛰며 선이는 헤리와 숨바꼭질을 합니다.

―미련해. 미련해. 몇번 온 손님도 못 알아보고 쥐 한 마리 못잡는 미련한 똥개.

엄마가 나무라기만 하던 헤리가 훌란다스의 개보다 더 영리한 믿음직스런 개가 된것 입니다.

그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굵은 소나기가 쏟아졌읍니다. 헤리의 털이 축축하게 젖고 단풍잎 이불도 다 젖어서 그만 못쓰게 되었읍니다. 그러더니 빗줄기가 한 개 두 개 떨어질 때마다 말 소리를 달고 쏟아지는 것 입니다.

―헤리가 약 먹고 죽었단다. 부엌에 놓은 쥐약 먹고 끈이 풀어지는 바람에 죽었어. 반장 아저씨가 만오천원에 팔라고 그래서 줘버렸단다. 어차피 죽은 개 묻는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니? 판 돈으로 우리 선이 예쁜 코트 사줄께. 인형도 사 줄께. 아니, 더 좋은 강아지 사줄까? 그깐 애꾸 개, 너네 친구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구 원래 헤리 살때 몸보신용으로 키우려고 했던 게야.

빗줄기가 유치원 선생님이 쳐주시던 월츠곡보다도 훨씬 빠르게 퍼붓기 시작했읍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엄마, 헤리 눈은 나땜에 그랬단 말야. 내가 안그랬다고 거짓말 했던 거야. 장난치다가 아빠 자전거 뒤로 숨었을 때 헤리가 뛰어들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오그라져 삐끔히 나온 쇠가 헤리 눈을 찔렀단 말야. 착한 헤리는 울지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좋아서 꼬리를 흔들어대지 뭐야. 쥐약 먹었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갔음 살았을텐데…엄만 본이 아까와 그랬지? 물까봐 방문 걸어잠그고 마당에 버둥대게 내버려 두었지?

『선이야, 선이야』

흐느끼며 잠꼬대하는 선이를 석이가 흔들어 깨웠읍니다.

『다 왔어. 내리자, 버스 청소 한대』

버스에서 내린 곳은 벼를 모두 베어버린 논과 고추가 널린 모습이 빠알간 마을이 정답게 보였읍니다. 가게에서 빵과 비스킷을 사들고 마을을 돌아 산쪽으로 올라갑니다. 갈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멀미기운인지 핑하니 어지럼증이 생겨났읍니다. 도중에 마른 풀을 거두고 있던 아저씨가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조금 올라가다 하늘에 닿을 듯 키가 큰 대나무숲에 이르렀읍니다.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대숲안으로 들어갔읍니다. 땀뻘이 짜게 입술에 닿았읍니다. 석이가 먼저 뛰어가서 대숲 깊숙한 곳 마른 흙을 돋우어 납로 꼭꼭 눌러 놓았읍니다.

『선이야, 여기 앉아. 여기가 젤 좋을거야. 그지? 와, 하늘 봐. 대나무가 하늘을 넘었어. 전쟁놀이 할 때 쓰면 참 좋겠다』

『……』

대숲을 스쳐가는 바람소리가 석이가 별어낸 말을 몇번이나 울려 반복하더니 이옥고는 모두 다 바람이 되었읍니다. 빵과 비스킷을 배불리 먹고 그림책도 여러번 보았읍니다. 이미 다 본 그림책이라 별로 새롭거나 흥미롭지가 않았읍니다.

어둠이 금방 찾아왔읍니다. 으스스 추운 바람이 옷속을 파고 들었읍니다. 온몸에 오돌토돌한 소름이 돋아올랐읍니다. 입술이 파아랗게 된 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석아, 촛불이 있었음 좋겠지?』

『응, 이불도 있었음…』

『그래, 허지만 헤리만 있음 좋겠다. 헤리 털은 따습거든? 무서운 밤도 지켜줄텐데』

『에이…너무 추웁다. 얘기하면 덜 추울텐데…』

대숲에는 밤이 일찍 오는가 봅니다. 벌써 초저녁 별이 깜박이며 떠오릅니다. 선이는 포도알같은 눈동자에 반짝 빛을 띠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젤 먼저 뜬 별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댔는데, 근데 저렇게 많이 떠버렸어』

석이는 오늘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선이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소르르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젤 처음 떴을까? 음…그래, 이것이겠다. 내 바른쪽 대나무 있지? 그 똑바로 위의 별이다. 그 별이 젤 크거던? 왜냐믄 말야. 석이 네 본언니도 젤 먼저 났으니까 젤 크지… 별님, 울 헤리를 살려주세요. 눈이 안 나아도 좋아요. 내 저금통 꽉 채워서 주믄 헤리가 살아나나요? 인형도 동화책도 다 줄께요. 어머? 석아, 별이 대나무에 걸린 것 같애. 샛노란 별이 대나무에 걸렸어』

석이는 어느새 선이의 어깨에 기대어 코를 골고 있읍니다.

『이 대나무 잘라내믄, 그래서 끝을 보믄 별이 달려 있을텐데…하늘이 묻어 있을텐데…아빠가 아주아주 긴 낚싯대 가지고 깊디 깊은 물속의 고기 잡는 거 보믄 알 수 있어. 대나무 낚싯대로 별을 건지는 거와 뭐가 다르니? 뭐가 다르니…뭐가…다르…니』

별을 바라보던 선이의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대숲속의 바람이 떼를 지어 몰려왔다가 몰려갑니다. 깜깜해진 대숲 입구 저쪽에서 수많은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이야, 어딨니?』

『석이야 어딨어』

선이네 엄마도 석이네 엄마도 목청껏 외칩니다. 모두들 울음섞인 목소리입니다. 낑낑대는 강아지의 귀여운 소리도 들리는듯 합니다. 그러나 선이와 석이는 깊은 잠속에서 대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굵고 싱싱한 별이 달린 꿈나무를 캐어내는 것입니다. 여간해서 키 큰 대나무가 넘어지질 않습니다. 헌커엉 헌커엉 유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리가 흰 꼬리에 푸른 리번을 달고 달려옵니다. 맨 뒤에서 헤리도 무엇인가를 물고 달려옵니다. 아, 그것입니다. 오월 어버이날 엄마가슴에 꽂아 주었던 은해빛깔의 붉은 카아네이션, 종이화병에 꽂아 두었는데…먼지가 많이 묻은 카아네이션을 조심스레 헤리가 물고 옵니다.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지. 엄마가 기다리다 울텐데, 내가 보고싶어 마 울텐데.

선이와 석이는 꿈속에서 함께 카아네이션을 주워 일어섭니다. 대나무에 걸렸던 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으며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읍니다. 〈끝〉

〈그림·權大雄〉

審査評

◇한국新春文藝童話부문심사를 맡은 金耀燮씨㊧와 신현득씨。

환상과 현실의 교류 자연스러워

작품 수준이 例年보다 向上돼 있었고 主題들의 應募가 많았던 것은 퍽 흐뭇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낡은 수법에 의해 씌어진 작품이 많았다. 그 첫째가 童話에는 「꿈」이 必須的이라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해결하기 힘든 장면을 꿈속의 사실로 적당히 얼버무려 버린다.

또한 作品에서 가장 [illegible]해야할 圖式化된 생각들이 노출되고 있다. 덮어 놓고 都市를 否定한다. 시골은 살기좋고 도시는 나쁘다. 부모는 의례 고루하다. 부유한 사람은 나쁘다. 가난한사람은 착하다. 이런 식의 객관성 없는 관념으로 작품을 전개해가다보니 공감을 얻지 못한다.

자연보호등 時流에 너무 편승하다가 내용을 자연스럽게 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읽혀지지 않는 동화는 文章과 構成이 미숙한데서 생겨난다. 동화의 문장은 어느 장르보다 간결해야 하고,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변화가 있어야 하며, 재미스럽고 文學性을 같이 지녀야한다. 특히 導入部부터 독자의 흥미를 잡아 가야 한다.

그러므로 5~6장을 읽어 나가도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작품, 절반을 읽었어도 아직 이야기가 제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실패한 작품들이었다.

이런중에서도 〈하늘낚시〉 〈짝〉 〈꿈나무 병원〉 〈귀꿈자〉 〈도축장의길목〉 〈서울의 봄〉등이 個性있고 동화의 特性을 잘 살린 작품으로 읽혀졌고 특히 〈짝〉은 당선작 〈하늘 낚시〉와 끝까지 겨루던 작품으로 어린이 생활을 소재로한 밝고 흥미있는 작품이었다.

〈하늘 낚시〉를 당선작으로 뽑은 것은 이작품에서 보이는 작자의 역량 때문이다.

이 동화는 환상과 현실을 왕래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퍽 자연스럽다. 文章이 좋고 작품의 내용에서 강한 문학성이 풍기고 있어 기대를 갖게한다.

金 耀 燮
신 현 득

當選所感

늦가을 講義시간에 몰래쓴 첫 작품이…

왠지 우울한 날이면 내게 차고 붉은 벽돌대신 웨하스 비스킷으로 지은 따스운 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내 입이 아프도록 자꾸만 반복해서 들려달라고 하던 사람의 마른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얼굴은 늘 나로 하여금 끝없이 평화로운 거짓말(?)을 지어내게 하였고, 괴리감 투성이의 가슴밭에 초록의 신선한 풀포기들을 하나 둘 심어주고 있었읍니다. 그런 고마운 얼굴에 모처럼 오늘은 밝은 빛을 몇개 담아줄수 있을것같아가슴이뿌듯합니다.

늦가을 강의시간, 교수님 몰래 꿈꾸듯 썼던 첫 작품이 이렇게도 많은 기쁨과부끄러움과눈물을가져다주다니….

이제는 정말 피를 말리는 이 작업장에서, 녹슬어 낡은 내 의식의 삶이며 더바삐 꿈을 져 나를 지게며 어둠을 조아 일굴 호미같은 것들을 정성들여 닦아둬야 할 때인가 봅니다. 잠속에서 썼던 「닭울음과 호롱불」의 이야기도 더욱 열심히 눈물나게 써야 할 때인가 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도규수문학동인회와 함께 이 크낙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손매듭안에 하늘낚시대를 쥐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朴美淑略歷〉
▲61년=광주출생 ▲80년=광주여고 졸업 ▲현재=전남대학 국어교육과 2년재학중 「남도규수문학」 동인

現代人의 健康百科

가래·기침 年中3개월이상 2年계속되면 慢性

氣 管 支 炎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폐기종등 소위 閉塞性 폐질환환자가 성인병 또는 노인병의 하나로 증가하고있다. 과거에 이런병을 가진 환자가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증세가 가벼운것이 대부분이어서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심각한것이 아니었다. 이때문에 이들 병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활동에 큰지장을 초래하는가하면 생명마저 앗아가는 현상을 빚게된것이다. 만성기관지염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알려진 영국의경우 45~55세사이에 사망하는 남자의 15%정도가 기관지염에 의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로해서 1년에 1천5백만날(日)이 일을하지 못하게 된다는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 기관지염은 정부보상금지급대상질환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수치를 차지하고있어 매년 수십억달러를 이로해서 손실을 보고있는것으로 되어있다. 폐색성 폐질환은 동양사람에게 비교적적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70년 일본에서 실시한 疫學조사에 따르면 폐색성 폐질환이 65세이상 고령층에서 전체의 9%를 나타내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없어 어느정도의 사람이 기관지염등 만성폐색성폐질환을 가지고있는지 알수가 없다.

그러나 임상경험으로 볼때 최근들어 이들 질환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만성기관지염이란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 임상적인 소견을 근거로 정의하는 하나의 증상군을 뜻한다.

학술적으로 말해서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벽의 점막분비조직의 증식때문에 생기는 過度의 粘液분비를 특징으로하는 증상인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서 심장과 폐질환이 없는 사람이 가래를 배출하는 기침증상을 1년중 3개월 이상 2년간을 계속하고있을때 원인에관계없이 만성기관지염이라고 규정한다. 만성기관지염은 증상에따라 단순성만성기관지염 粘液膿性기관지염, 만성폐색성기관지염등으로 구분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증상의정도를 이야기하는것으로 원인이 다르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치료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수가 있어 임상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 나눠놓은것에 불과하다.

金 建 烈
【醫博·서울大의대내과교수】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 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881-71[illegible]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illegible] 279-63[illegible]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 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 : 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 : 30 금요오후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illegible]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선교교회	안성엽	주일 낮1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성경공부 주일오후 3시 주일오후 1시,	2099 Weston Rd.	248-9709 248-165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3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6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의 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 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 : 30 일요오후2 : 30	63 Dunblaine	488-42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274-5305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8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다)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덤플엘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인

중역간부모집—어느정도 영어에 용통하고 용모 단정한 분. 당회사는 기반이 잡혀있는 무역회사임.
☎ : 962-0019

웨이츄레스와 키친 헬퍼 구함
459CHURCH ST. TOR. (미치 레스토랑)
☎ : 924-7501

도미니언·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자분 구함(YONGE & COLLEGE 빌딩안)
월~금 : 8시30분~9시30분 ☎ : 598-1140

스토아 헬퍼 구함(유경험자)
☎ : 491-9701(던밀×세파트 지역)

ROOM MATE구함
6시 이후 연락바람
☎ : 745-5174(MISS. BANG)

NIGHT TIME WAITRESS 구함
460 DUNDAS ST. W.
☎ : 977-2164(Mr. NIKKO)

세살난 미국소녀 친구되어줄 한국 어린이 찾습니다.
위치 : HIGH PARK
☎ : 769-7822

도너스샾에서 주말에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 00PM. ~9 : 00AM. (스카보로 지역)
☎ : 284-9325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풀타임 성실한 남자구함.
저녁6시~새벽2시
☎ : 531-2689(Mr. 김)

도너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밤11시부터 아침7시까지(일요일~목요일까지)
☎ : 482-4088

맥스 밀크 스토아에서 일하실 캐쉬어 구함.
1주일에 26시간
☎ : 244-5248

* 성실하고 신체건강한 운전면허 소지자 남자분
* 주6 일(WAGE : $350)
직접내방 바람. 고려식품

• 가게봐주실분 구함.
• 6412 YONGE ST.
☎ : 221-6544 Mr. 안

• 토요학교버스(VAN)운전하실분 구함
토론토서부지역, PAY : 1회 $30
씨알한국인학교☎ : 441-2986, 960-0074

• 입주하셔서 2월 한달간 2개월된 아기 돌보아 주실분
☎ : 446-1346

✲ Cook Wanted ✲
KOREAN VILLAGE RESTAURANT
628 BLOOR ST. ☎ : 536-0290

매매및 양도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쌈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 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몰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극장옆 코너위치(로타리오 에이전트)
3344 YONGE ST. (직접 내방 요망)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급 매
템뿌라, 가마보꾸 제작기게 6점.
냉면기게 3점, 제분기계 1점(ALL NEW)
※기계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람
☎ : 862-0361(홍)

버라이에티 스토아 매매(주매상 : $4,500
렌트 : $400 리스5+5년(가능) 아스킹 : $41000,
☎ : 221-2084(Mr. LEE)

78년형 VAN(G. M. C.)매매
마일레지 : 45,000마일스 가격 : $3500.
☎ : 281-1938(Mr. KIM)

DELICATESSEN & MEAT STORE FOR SALE 주매상 : $2,300 렌트 : $425
아스킹 : $23,000(모게지가능)☎ : 742-3216

매 매
• 토론토, 해밀톤, 오샤와등 외각지역의 가게들
• 매니저 또는 후랜차이스 매니저 구함.
☎ : 652-5817

해밀톤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000, ASKING $195,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90,000
• 주매상 $4,200 ASKING $152,000
건물포함 다운페이 $60,000
• 주매상 $4,000 다운페이 $50,000
건물포함 $159,000
• TUCK SHOP
주매상 $4,200, 좋은리스, 다운페이 $80,000
☎ : 1-662-4705, 1-662-7609
MONTREAL TRUST 전 병 호

스토아+주택(4베드룸)매매
주매상 : $4,200 $30,000 DOWN+STOCK
☎ : (1)-579-4451

부인혼자 할수있는 세탁소 매매(주매상 : $1,200
월세 : $500 리스 : 7년 가격 : $35,000)
오후4시이후 문의바람 ☎ : 423-7280

• 이사관계로 급매(미시사가지역) 주5일 오픈
년매상 : $200,000 우유제품 제외
• 아스킹 : $30,000+스탁+설비.
☎ : 1-877-0634
(월, 화, 수, 토 오후7시이후 전화)
(목, 금, 일 오후9시이후 전화) ASK for JOE

BRACEBRIDGE ONTARIO
주류면허 LLBO를 갖고 있으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와, 지불 기간에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팝니다.
Clarence La Bossiere
☎ : (705)325-4454 낮, (705)326-7468 밤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미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3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팔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구 혼

1957년생(서울출생, 남)
신장 : 169cm 특기 : 태권도4단(양친 캐나다거주)
☎ : 291-2976

구 혼 : 1957년생(25세), 키167cm,
직업 : 컴퓨터, 결혼할 여자구함.
☎ : 534-9660

하우스 렌트

독신자 원함 $170(MONTHLY)
RAPE SUBWAY에서 한 블럭 거리
☎ : 282-0236, 929-5531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센츄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양장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남파·김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862 김 수 용

한방원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을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손영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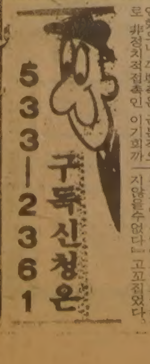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3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구독신청은 533-2361

南北文化交流 北側서 묵살

오스트레일리아紙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행되는 日刊신문 에이지紙는 5일字에서 『지난해11월 한국의 李光杓문공부장관은 연구자료의 南北韓상호교환과 합동전시회 개최, 이념과 정치적차이를 떠난 합동연구를 제안했으나 北傀측은 근본적으로 非정치적접촉인 이 기회까지도 냉혹한 침묵으로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어 『北韓이 정치, 경제, 체육,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제안들을 거부하고 있는것을 보면 3천7백60만의 한국과 1천7백50만의 北韓을 北韓방식대로 통일하자는 뜻이 무엇인가를 의아해 하지 않을수 없다』고 꼬집었다.

『내 얕은 지식에 이런 말이 있소이다. 신구(神龜)는 꿈속에 조화(造化)의 신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부(漁夫)의 그물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장자(莊子)의 이 말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으레 상기(想起)하는 것이어서 계남이 말해 본 것이었다.

조화의 신과 꿈속에서 상통하는 신구마저도 하찮은 어부의 그물에 걸릴진대 하물며 약한 인간이랴! 사람은 실로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오꼬이는 감동한 눈빛으로 황홀한듯 계남을 쳐다봤다.

계남이 다시 말했다.

『총욕불경(寵辱不驚) 한간정전화개화락(閑看庭前花開花落)』

『무슨 뜻이오이까』

히라또가 물었다.

『총애를 받고 영화를 누리건 오욕(汚辱)속에 살건 놀라지 않는다. 다만 한가로이 뜰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볼뿐이다. 대강 이런 뜻이오만 당신의 청아한 모습을 보니 그런 영욕(榮辱)을 초월한 선녀(仙女)를 연상하게 됩니다』

오꼬이는

『황공하기 이를데 없다』

고 잔이 머리 숙여 절한 뒤 다시 장금을 뜯기며 노래 불렀다.

『꽃의 생명은 짧아 아침에 피어 저녁에 져도 그 속에 깃든 영혼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할지니 부생(浮生)탓하지 말고 만남의 인연일랑 소중히 하였으면…』

이렁 저렁 이야기로 밤이 깊었다. 계남이 기분 좋게 술에 취했다. 한무제(漢武帝)의 추풍사(秋風辭)를 읊었다.

「…환락극혜 애정다(歡樂極兮哀情多)」란 절구(絶句)에 이르러 스스로 애상(哀傷)에 젖었는데 히라또는 그 시의 의미를 말하라고 했다. 서툰 일본말로 계남이 설명하자 오꼬이의 눈에 가득 눈물이 괴었다.

계남이

『당신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는가 봅니다』

하고 잔을 권했더니 오꼬이를 대신하여 히라또의 말이 있었다.

오꼬이는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정적(政敵) 시바따가쓰이에(柴田勝家)의 첩실(妾室)에서 난 딸이었다. 시바따가 수길파의 결전(決戰)에서 패배하자 그의 남계(男系)의 사람들은 모조리 살육을 당하고 처첩(妻妾)과 여계(女系)들은 수길 휘하(麾下) 제후들의 첩 또는 노비가 되었는데 오꼬이는 어렸기 때문에 유모의 비호하에 있다가 15세되던 해에 기원(祇園)의 무기(舞妓)가 되었다는 것이다.

『때가 때이면 오꼬이는 백만석 영주(領主)의 공주(公主)님으로써 영화속에 살 사람인데』

히라또는 이렇게 오꼬이에 관한 설명을 맺었다.

계남은 서툰 어머니의 비운을 생각했다. 종류는 다르다고 하겠으나 운명은 비슷하다는 느낌이었다.

(어떻게 해서 자기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자기의 과실도 아닌 것으로 약한 여자가 비운(悲運)을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계남은 뭔가 오꼬이에게 위로의 말을 남기고 싶었다.

風雅와 策謀 ⑨

流星의 賦

<278>

李炳注 作
李友範 畵